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작은도서관 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

일시 | 2015년 8월 27일(목)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사서연수관 대강의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한국도서관 협회
Korean Library Association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작은도서관 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요

- 개 최 목 적 :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사서 및 운영자를 위한 실무교육
- 일 시 / 장 소 : '15. 8. 27.(목)10:00~16:30/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사서연수관 대강의실
- 주 최 / 주 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
- 참 가 대 상 :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사서 및 운영자

세부일정

시간		내용	
10:00~10:20	20'	등 록	
10:20~10:25	5'	인사말	
10:25~10:40	15'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한윤옥 (경기대학교 교수)	
10:40~12:10	90'	작은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운영 방안과 실제 임성관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12:10~13:20	70'	중 식	
		A반	B반
		사회 : 조현양 (경기대학교 교수) 장소 : 국제회의장 1F.	사회 : 변현주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사무국장) 장소 : 사서연수관 대강의실 2F.
13:20~14:50	90'	에니어그램을 적용한 독서프로그램 백진환 (성남정자초등학교 사서)	인문고전 독서교육 프로그램 이아영 (구성중학교 사서)
14:50~15:00	10'	휴식	휴식
15:00~16:30	90'	북트레이서를 활용한 독서활동 프로그램 최용훈 (의왕부곡중학교 사서)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이보라 (부곡중앙초등학교 사서교사)
16:30		폐회	

목 차

- 7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한윤옥
- 13 작은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운영 방안과 실제 임성관
- 27 〈A반〉
- 29 에니어그램을 적용한 독서프로그램 백진환
- 47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 프로그램 최용훈
- 73 〈B반〉
- 75 인문고전 독서교육 프로그램 이아영
- 91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이보라

작은도서관 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한윤옥
경기대학교 교수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한윤옥(경기대학교 교수)

1. 개요

-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임.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양적성장에 비해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은 적음.
- 국가의 작은도서관 정책추진 방향도 양적증가보다는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봄.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모색이 요구됨.
-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역할 수행과 마을 단위 독서사랑방으로 육성하면 좋을 것임.
- 이를 위해 전국의 작은도서관에 보급할 독서문화·독서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배포를 통해 독서문화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

2. 추진방향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독서지도 전문 인력 17명 내외를 선발,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학습지도안 262개를 개발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시범적용
- 작은도서관 보급 독서프로그램 교안으로 제작, 지역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배포

3. 세부추진계획

1) 프로그램 개발

- 참여자 : 주제별 독서지도 전문가 17명
- 운영기간 : 2015년 3월 ~ 12월
 - 프로그램 개발 준비활동 : 3월 ~ 4월(2개월)
 - 학습지도안 개발 및 시범적용
 - : 1기 - 5월 ~ 7월(3개월)
 - : 2기 - 9월 ~ 11월(3개월)
 -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책자) 제작 : 12월
 -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책자) 배포 : 12월 말
 - 배포처 :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
- 내용
 -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이 가능한 대상 및 주제를 고려하여 독서지도 학습지도안을 262개 개발
고려점: 평생독자 선상에서 모든 연령대를 고려한 적정 프로그램 개발
 - 독서지도학습지도안을 개발하기 위해 독서지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프로그램 설계안을 구축
 -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이 가능한 독서프로그램으로 독서지도학습지도안(교재, 워크지, 평가자료)을 제작

2) 작은도서관 사서 역량강화

-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용 워크숍 개요
 - 일자 : 2015년 8월 예정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 미정
 - 대상 :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사서 150여명 예정
 - 강의방법 : 이론보다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교육 위주로 실시
 - 강의내용 : 작은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
 - 독서지도 전문가 적극 활용
-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세미나 개요
 - 일자 : 2015년 10월 중(전국도서관대회 기간 중)
 - 장소 : 송도컨벤시아(인천광역시 소재)
 - 대상 :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관계자

- 내용 :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작을 알리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및 활용 사례 발표

4.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도서관서비스 제고
- 작은도서관에서의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
-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전문성 및 업무능력 강화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도모

5. 개발프로그램 종류 및 대상자 (총 20개 주제, 262개 프로그램 개발 예정)

독서 활동 주제	대상	프로그램 수(운영자)
까칠한 청춘들, 책으로 말 걸기	비행청소년	12(고정원)
힐링책(冊)당: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있으랴	20대 여성	12(김길자)
북 테라피 : 상처받은 그대의 마음 발을 노닐다.	주부	12(김길자)
꾸미 이루미	중학생 이상	12(박정애)
맞아맞아 성격! 하자하자 독서!	초등 5,6학년	16(백진환)
들리니? 내 안의 북(BOOK)소리	초등고학년	12(백진환)
디(Discussion)파티!	중학생 이상	16(윤남미)
책으로 통(通)하였느냐, 톡(talk)하였느냐	초등 4-6학년	12(이보라)
고독(古讀-고전을 읽는)한 중딩들	중학생 이상	10(이아영)
공든 책이 무너지랴	어린이	12(이아영)
독(讀)안에 든 부(父)자(子)	자녀+부모 7팀	12(임성관)
지독(智讀)한 사람	부부7팀	12(임성관)
그림책 밖으로 풍당	7세-초등2학년	24(장해숙)
빈둥지를 차지한 중년	50대 중심	12(정원임)
은나라 시(부모)장(인장모) 마음 나누기	60대 중심	12(정원임)
친구야 너의 맘 이해해	중학생 이상	12(차연희)
내 안의 프리즘	중학생 이상	16(차연희)
독서, 영상의 날개를 달다	중,고등학생	12(최용훈)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초등 고학년	12(허정희)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초등 3-6학년	12(허정희)

메르스로 시기 지연되었으나 현재 1기 프로그램은 대부분 종료됨. 2기 프로그램은 9월 시작 예정임.

작은도서관 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

작은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운영 방안과 실제

임성관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작은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운영 방안과 실제

임성관(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1. 치료에 대한 오해와 이해

우리에게 있어 ‘치료’는 병원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행하던 행위였다. 그런데 심리학이 출현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모색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심리치료를 위한 여러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치료’의 개념이 또 하나 생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혼란감을 갖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치료에 대한 오해를 넘어 이해를 먼저 구하고자 한다.

독서치료에서의 치료는 ‘therapeia(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돕다, 병을 고치다)’라는 그리스어의 단어에서 유래했다. 이 의미에도 ‘의학’이 포함되어 있으나, 심리치료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는 하지만 더불어 성장과 발달, 적응을 돕는 측면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2. 독서치료에서의 문학작품

독서치료는 문학작품을 매개로 한다. 따라서 독서치료에서 활용되는 문학작품은 의사가 처방하는 치료약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적정 치료 대상자에게 적정 문학을 선정해 처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독서치료에서의 문학작품을 ‘인쇄자료(책, 시, 신문 및 잡지의 기사 등)’로 한정 지어 생각하는데, 영화나 드라마 등의 ‘시청각자료’, 사진이나 특정 물건 등의 ‘실물자료’ 등도 포함이 된다.

독서치료전문가는 문학작품을 많이 알고, 적정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소 문학작품을 두루 살펴보고 분석을 가한 뒤, 필요 시 골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독서치료에서 활용하는 문학작품의 예시들이다.

- (1) 인쇄자료 - 도서, 시
- (2) 시청각자료 - 드라마, 영화, 광고,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기타
- (3) 실물자료 - 사진

3. 상호작용을 위한 발문법

치료는 치료사와 내담자 또는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독서치료는 그 상호작용을 위해 중간 매체로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독서치료 장면에서는 내담자가 책을 치료적으로 읽어내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발문법’을 드는데, 발문은 치료사가 내담자를 이야기 속으로 안내할 목적으로, 또는 그의 내면세계 속에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이 일어나도록 촉진할 목적으로 계획된 물음을 던지는 것을 말한다.

(1) 동일시를 촉진하는 발문

텍스트 수준 - “만약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다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은가요?”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내담자 수준 - “왜 그 역할을 해보고 싶은가요?”,

“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2) 카타르시스를 촉진하는 발문

텍스트 수준 - “○○가 ○○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담자 수준 - “당신이 만약 ○○처럼 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3) 통찰을 촉진하는 발문

텍스트 수준 - “○○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내담자 수준 -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4) 내 삶 적용을 위한 발문

내담자 수준 - “그럼 당신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했었나요?”

4. 독서치료에서의 활동

(1) 독서치료에서 활동의 필요성

활동은 선정 자료를 나눈 뒤 실시하는데, 특히 언어적인 면에서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할 때, 언어 이외(음악, 미술, 연극, 작문 활동 등) 아동 및 청소년 등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참여자들일 때 필요하다. 이때의 활동은 언어를 대체하는 것일 수 있다.

(2) 독서치료에서 활용되는 활동

독서치료는 인쇄자료는 물론 시청각자료에서 실물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매개로 한다. 이와 같이 활동도 다양한 예술 분야를 두루 활용하는데, 특히 음악과 미술, 연극과 작문, 놀이가 주로 쓰인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또 다른 분야가 활용되기도 한다.

(3) 활동의 실제

① 작문 활동

글쓰기는 독서치료의 하위 분과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인지 독서치료와 가장 색깔이 잘 어울리는 활동 분야이다. 시를 쓰거나 일기를 쓰는 것,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은 매우 보편적이다. 나아가 자서전을 쓰기 등 다양한 분야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글쓰기는 내담자 및 참여자에게 부담스러운 활동일 수 있다.

② 미술 활동

치료 분야들은 서로의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그중 미술 활동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독서치료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미술의 다양한 재료와 기법들을 두루 활용한다. 그런데 미술의 재료는 구입 시 비용이 많이 들고, 활용 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도 있다. 따라서 적정할 때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③ 연극 활동

집단 심리극의 아버지인 모레노(Moreno)는 극적인 요소를 심리치료에 도입한 사람이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유용성에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역할극은 독서치료 장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일 것이다. 그런데 연극 활동은 조직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준비할 것이 많을 수도 있으니 깊은 생각을 해 본 뒤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담자 및 참여자들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활용할 필요도 있다.

④ 음악 활동

독서치료에서의 음악은 보조 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하는 것은 음악치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적정 노래를 선택해 가사와 함께 나누는 것, 어떤 활동 시 배경 음악으로 활용을 하는 면에서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⑤ 게임 활동

치료 작업 시 게임도 적절히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필자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시 전래 놀이(게임)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고려를 해야 할 점은 아동 집단인 경우 장소가 충분한지, 활동을 하고 났을 때 다시 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이다.

(4) 활동을 보는 치료사의 관점

우리에게는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태도와 과정이다. 그러므

로 완성된 결과물을 요구하지 말고 따라가 주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독려를 할 필요는 있겠다.

5.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다음에 소개할 실제 프로그램 사례는 평택에 있는 ‘THE기쁜어린이도서관’에서 ‘부모-자녀’ 및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부모-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자녀 중 1명과 부모 1인으로 이루어진 7팀, 부부는 결혼 10년 이상에 접어든 7팀을 각각 모시고 운영을 하였다. 이 가운데 ‘부모-자녀’ 프로그램은 1세션 당 운영 시간이 90분이었고, ‘부부’ 프로그램은 1세션 당 운영 시간이 120분이었다. 또한 두 프로그램 모두 전체 운영 세션은 12세션이었다.

지독(智讀)한 사랑 부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가정의 출발은 남녀가 사회나 관습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관계는 남녀 이성사이의 생리적 상호보충의 기능을 기반으로 심리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의존하는 밀접하고 총체적인 것이다. 이러한 부부는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즉 부부는 서로에 대한 헌신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체계를 이루고, 갈등과 분노를 창조적으로 분출시키며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다.¹⁾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 요소를 갖고 있듯이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해와 노력, 변화를 바탕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경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고와 감정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사고방식 등의 차이를 만들고, 차이는 결국 어느 정도의 불만과 갈등, 충돌을 유발하게 된다. 다음은 여러 학자들이 말한 부부 갈등의 원인이다.

먼저 클러머(Klemer)는 부부 갈등을 기대의 문제로 보고 부부가 과대한 기대, 혼돈의 기대, 충분치 못한 기대, 부부간의 기대 차이 등을 가질 때 갈등하게 된다고 하였다.²⁾

콜린스(Collins)는 부부 갈등 요인을 잘못된 의사소통,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 대인간의 긴장, 외부의 압력으로 보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 그 부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하여 자극을 받는 원인, 권태 등이 갈등 요인이 되는

1) Mace, David & Mace V. 1983. Prevention in Family Service : Approaches to Family wellness. Beverly Hills, California : Sage Publication, pp. 104-105.

2) Klemer, Richard H. 1970.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New York : Harper and Row. pp. 31-32.

것으로 보았다.³⁾

사티어(Satir)는 갈등의 원인이 가족규칙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즉 자기 가치가 낮고, 의사소통이 간접적이고 모호하여 정직하지 않으며, 규칙은 엄하고 비인간적이며, 비타협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사회와의 연결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여 책임전가 하는 가족규칙에 있다고 하였다.⁴⁾

아론 벡(Aaron T.Beck)은 부부의 갈등은 성격상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릇된 커뮤니케이션과 상대방 행동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이런 오해는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게 될 때 일어난다. 왜곡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잘못 해석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를 가진 것처럼 보게 만든다.⁵⁾

양정자는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경험한 부부 상담을 토대로 한국의 부부들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희생을 요구할 때, 부부가 어떤 이유로든 서로를 구속할 때, 부부 관계를 적이 아닌 원수로 여길 때, 부부 관계를 가르쳐서 고치려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생각할 때, 왜곡된 부부 관계를 가졌을 때 갈등을 겪는다고 하였다.⁶⁾

김상복은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가정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인생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성품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남녀의 기본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심리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부부는 감정의 상태와 일 처리하는 능력, 문제해결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경험), 체질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보았다.⁷⁾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부부 사이 갈등의 원인은 의사소통문제, 기대의 차이,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자녀교육문제, 직장에 따른 문제 등이 공통적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문화적 특성 상 배우자의 외도나 고부간의 갈등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모든 부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고, 서로의 관계 변화와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부부 관계는 자녀는 물론 집안 전체, 나아가 사회에까지 영향을

3) Collins, G. 1990.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역. 서울 : 두란노. pp. 224-248.

4) Satir, Virginia. 1988. The New People Making. Mountain View :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pp. 3-4.

5) Beck, Aaron T. 2001.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제석봉 역. 서울 : 학지사. p. 25.

6) 양정자. 1995. 「부부싸움하면 이겨야 한다」. 서울 : 다섯수레. pp. 22-28.

7) 김상복. 1994. 「행복한 부부생활 꾸미기」. 서울 : 나침반. pp. 193-207.

미치는 요소이므로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독서치료를 바탕으로 부부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다.

2. 프로그램 구성

- 1) 기간 : 총 12회
- 2) 운영 시간 : 120분
- 3) 참여 대상 : 결혼 기간 10년 이상 된 부부 7쌍

3. 프로그램 세부 계획

세션	소주제	세부목표	선정자료	관련 활동
1	마음 열기	오리엔테이션 및 소개 나누기	시: 관계	프로그램 소개, 집단 서약서 작성, 사전 검사, 소개 나누기
2	인식	서로에 대한 인식 점검하기	시: 가구	내가 알고 있는 당신
3	이해	성장 과정 이해하기 1 - 아동 청소년기	도서: 나의 시작동 사진: 어린 시절의 사진	인생선 그리기
4		성장 과정 이해하기 2 - 성인기	노래: 서른 즈음에	성인기의 지화상 콜라주로 표현하기
5	만남과 결혼	결혼 과정 회상하기	영상: 사랑에 빠진 암소와 호랑이	결혼 과정 도식화하기
6	갈등	부부 사이 갈등 점검하기	도서: 설탕엄마 소금아빠	서로가 지지하는 갈등 요인 점검
7	욕구	서로에 대한 욕구 점검하기	영상: 그걸 바꿔봐	상대가 바꾸어야 할 점, 내가 바꾸어야 할 점
8	갈등 해결	갈등 해결 기술 1 - 생각 들어주기	글: 상대방의 말 중복하기	마주 대화 나누기
9		갈등 해결 기술 2 - 마음 받아주기	도서: 마음의 집	마음의 집 구성하고 표현하기
10		갈등 해결 기술 3 - 행동 감싸주기	시: 안기기, 안아주기	안기기, 안아주기
11	관계 증진	부부 관계 증진을 위한 목표 수립	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모방 시 쓰기, 부부 관계 목표 수립
12		remind wedding	도서: 당나귀 부부	Remind Wedding Ceremony, 사후 검사, 참여 소감 나누기

독(讀) 안에 든 부자(父子) 부모 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적응과 동시에 성장, 발달, 성숙을 해야 하는 인간은 여러 대상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 과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습득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측면을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 Theory)이나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론들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의미를 둔다. 왜냐하면 부모-자녀 관계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신과 동시에 시작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로 상호작용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밀접한 사회적 관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가 되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험은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자 다음 세대로까지 전승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시대를 보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상호작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서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에 충실할 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관계 및 사회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적정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독서치료적 접근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자녀들에게 있어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책을 읽는 경험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또한 독서는 인쇄자료

및 비인쇄자료 등의 문학작품에 담겨 있는 치료적 정보를 읽음으로써 습득해 성장 및 발달, 적응을 돕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다른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프로그램 구성

- 1) 기간 : 총 12세션
- 2) 운영 시간 : 1세션 당 90분
- 3) 참여 대상 : 부모 1인과 초등 1-2학년 자녀 중 1인으로 구성된 가족 7팀

3. 프로그램 세부 계획

세션	소주제	세부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마음열기	프로그램 소개 참여 가족별 소개	도서 : 우리 엄마 도서 : 올리비아	프로그램 소개, 집단 서약서 작성, 사전 검사, 소개나누기
2	인식	서로에 대한 인식도 확인	도서 : 엄마, 누가 난지 알 수 있어 요? 도서 : 우리 엄마 못 보았어요?	동상이몽 게임, 우리 부자를 찾아라!
3	애착	애착 형성과 분리불안 점검	도서 : 엄마, 엄마, 엄마!	점점 멀리 점점 가까이, 장님과 택시기사 게임
4	욕구	서로에 대한 욕구 확인	도서 :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도서 : 솔이는 엄마 마음도 몰라	우리 부자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
5	감정	서로에 대한 감정 점검	도서 : 너 왜 울어? 도서 : 눈물바다	서로에게 주는 칭찬·벌점
6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 노출 1	도서 : 착한 엄마가 되어라, 얍! 도서 : 오 분만 쉬고 싶은 덩치부인	서로를 화나게 하는 방법, 착한 부자가 되어라 얍!
7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 노출 2	도서 :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라면	부-자 체인지! (역할 바꾸기 역할극)
8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안 모색	도서 : 엄마는 정말 모르는 걸까?	함께 하고 싶은 것 목록 만들기
9		상호작용 증진 활동 1	도서 : 산에 가자 도서 : 네가 나한테 읽어줄래, 나 는 너한테 읽어줄게	입을 모아 책읽기, 난화 상호 이야기 만들기
10		상호작용 증진 활동 2	동시 : 말이 안 통해 영상 : 엄마 말 들어	모방 시 쓰기, 마주 대화하기
11		상호작용 증진 활동 3	도서 : 엄마 얘기 좀 들어 보렴! 도서 : 엄마에게 주고 싶어요	사진 일기 쓰기
12	정서 안정	친밀과 정서적 안정 획득	도서 : 모든 가족은 특별해요	사후 검사, 참여 소감 나누기

A반

- 에니어그램을 적용한 독서프로그램 백진환
-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 프로그램 최용훈

에니어그램을 적용한 독서프로그램

A반

백진환
성남정자초등학교 사서

에니어그램을 적용한 독서프로그램

백진환(성남정자초등학교 사서)

1. 들어가는 말

학교에서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또래 친구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학교생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학생들이 처하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동들이 타고난 자신의 성향을 탐색하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타인의 고유한 기질과 특성까지 수용하며 존중하는 가치관을 배워 나간다면 건강한 학교생활은 물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얻을 수는 없더라도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다. 독서과정은 물론 독서 후 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나만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인격을 형성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기반으로 구성된 독서프로그램으로 독서를 통하여 인간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각자의 개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품성교육을 잘 융합하여 독서의 기본적인 목적 달성은 물론, 인성교육까지 함께 이루어 내고자 한다.

2. 에니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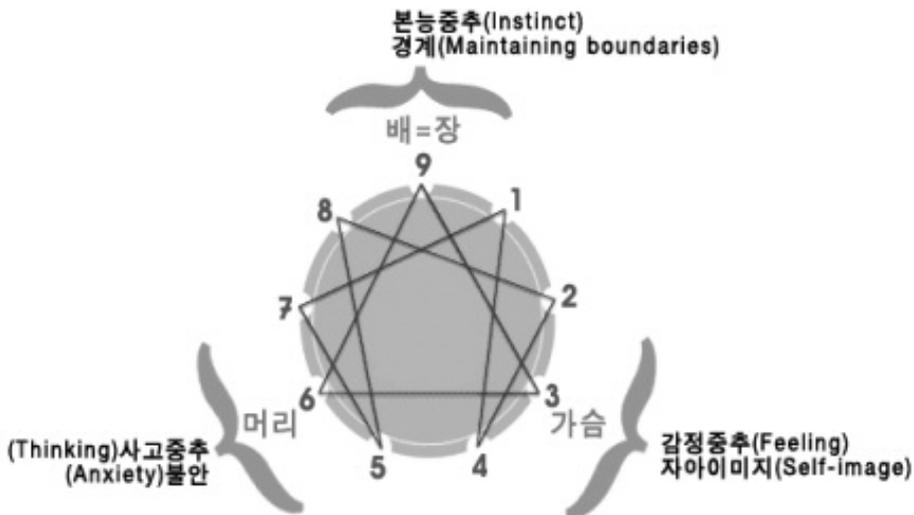
2.1 에니어그램의 개념

에니어그램의 어원은 아홉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니아(ennea)와 그림이라는 뜻의 그라모스(grammos)에 있으며, 아홉가지로 이루어진 인간의 성격유형과 그 유형들의 연관성을 표시한 기하학적 도형을 가리킨다.

에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보고, 다음으로 에너지의 바탕을 두고 핵심적인 기질적 욕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에너지의 중심에 따라 분류하는 ‘세가지 중심(Three Triad)’으로 나눈다.

2.2 에니어그램의 세가지 중심 그룹

세 가지 중심그룹은 서로 다른 지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신체의 세 부위 사용에 의해 감정형(2, 3, 4번 유형), 사고형(5, 6, 7번 유형), 본능형(8, 9, 1번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세가지의 중심 그림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에니어그램 9가지 유형의 모형

3개 중심 에너지별 자아를 살펴보면 가슴을 사용하는 감정형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접촉하지 못할 수 있다. 에너지의 중심을 감정과 느낌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관계하는 이미지에서 얻는다. 머리를 주로 사용하는 사고형은 에너지의 중심을 사고(분석, 생각)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과 거리감을 두는 것으로 얻기 때문에 이들의 주된 문제는 두려움이다. 장을 사용하는 본능형은 본능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대항함으로써 얻기 때문에 이들의 주된 문제는 분노이다.

에니어그램의 세 가지 중심 에너지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본능형인 장형은 일과 영역을 중요시 여기며 주로 느끼는 감정은 분노이다. 사람이나 일의 원리보다 상황을 먼저 고려하며, 에너지의 중심을 행동에 두고 있다. 감정형인 가슴형은 자아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주된 정서는 수치심이다. 가슴형은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감정이입을 잘 하며 관여된 사람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사고형인 머리형은 주된 정서를 불안과 공포로 가지고 사람과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 관찰자적인 태도를 취한다. 에니어그램의 세 가지 중심 에너지별 표현은 <표 1>과 같다.

<표 1> 에니어그램 3가지 중심 에너지별 표현

	가슴(2,3,4유형)	장(8,9,1유형)	머리(5,6,7유형)
설명	-자아이미지 -에너지의 중심을 가슴, 감정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과 관계하는 이미지에 둔다.	-경계유지 -일, 영역 -에너지의 중심을 행동에 두고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대항함으로써 얻는다.	-불안 -에너지의 중심을 사고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과 거리감을 두는 것으로 얻는다.
감정	-수치심(친절과 적극성의 외모 뒤에 자신의 공격성을 숨김) -사회적인 사람들	-분노(번민과 포를 자기주장이 나 외모에 숨긴다) -공격적인 사람들	-공포(따뜻한 마음을 객관적이고 무관심해 보이는 외모 숨김) -보존적인 사람들
관심	-권위와 이미지 -상징적 의식에 끌림 -집착과 의존 -거짓자아와 사랑 -과거 중심적	-자신의 존재 -힘과 정의 -현재와 미래 -환경에 저항 및 통제 -현재 중심적	-삶은 미스터리 -전반적인 상황 파악 -뭔가 틀릴까 걱정 -전략과 신념 -미래 중심적
상황 파악	-인간존중, 타인과의 관계 -직관적임(사람과의 관계와 접촉을 중요시함) -감정적인 대응	-진행중인 일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현실조정, 통제에 본능적 대처 -타인을 통제	-관찰, 대조, 분석, 비교, 사고 과정을 통해 상황파악(현실과 거리) -발달한 내면세계와 불안하게 느끼는 외부세계 통합 노력 -내적 판단

설명	가슴(2,3,4유형)	장(8,9,1유형)	머리(5,6,7유형)
의사 결정	-관여된 사람,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을 고려함	-상황에 적응 하거나 타인의 감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과 의무에 의해 의사 결정	-자신의 판단과 사고체계에 따라 결정함
판단 양식	-감정과 정서(직관적으로 인식)	-유추적(상황에 따라 직관적으로 판단함) -청각, 후각	-논리적, 사고적 -시각
신체 발달	-순환기 -수질=감정	-소화기 -근뇌=본능	-중앙 신경조직 -대뇌피질=사고
지능	-감성지능	-신체지능	-지적지능

2.3 에니어그램에서의 성격유형별 특성

에니어그램상의 성격유형별 특성을 보면, 가슴을 사용하는 감정형의 2번 유형은 남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써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3번 유형은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로써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에 따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 지고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4번 유형은 낭만적인 사람들로써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며 독창적으로 보여 지기 위해 노력한다.

머리를 주로 사용하는 사고형의 5번 유형은 관찰자로 표현되며, 자기 내면의 원천에 의존한다. 또한 지식과 혼자 있는 것에서 안전을 도모한다. 6번 유형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나 권위를 가진 존재에게 인정받는 것, 혹은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공포를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7번 유형은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로 활동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들은 두려움을 포함해 불쾌한 감정을 피한다.

장을 사용하는 본능형의 8번 유형은 자기주장이 강하다.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9번 유형은 평화주의자로 수용적이며 자신의 분노와 접촉하지 않는다. 1번 유형은 완벽주의자로 분노를 성격적 결함으로 보고 억누르려고 노력 한다.

에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별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의 분류이며, 가장 중립적인 표현을 위하여 숫자로 표현한다. 이 숫자의 크기나 배열에 따른 성격의 우열은 없다. 다만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에니어그램 9가지 유형의 장단점

기슴		머리		장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2유형		5유형		8유형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남을 도와주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사랑을 나눠준다	의존적이고 독점적이고 아침을 하고 일에 끼어들고 조중하려 하고 유혹적이다	분석적이고 관찰적이고 초연하고 현명하고 객관적이고 예민하다	내성적이고 사색적이고 인색하고 오만하고 소극적이고 감정이 없다	현실적이고 활발하고 자신감 있고 강하고 겁이 없고 정열적이다	공격적이고 타인을 조정하고 반항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하고 가혹하다
3유형		6유형		9유형	
자신감이 있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부지런하고 긍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허영적이고 이미지의식적이고 허위적이고 나르시스적이고 무정하다	충실하고 친절하고 현명하고 남을 존중하고 믿을 수 있고 용감하다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결정을 못하고 방어적이고 불안해하고 권위적이다	평화적이고 침착하고 위안을 주고 인내심이 강하고 온순하고 끈기 있다	게으르고 잘 잊고 결정을 못하고 건망증이 있고 허무주의적이다
4유형		7유형		10유형	
예민하고 독창적이고 예술적이고 유행에 민감하고 교양있고 감성적이다	우울하고 소유욕이 많고 자의식이 강하고 과민하고 움츠려들고 자기학대적이다	낙관적이고 사교적이고 즐겁고 상상력이 풍부 쾌활하고 모험을 좋아한다	도피주의자이고 산만하고 패락주의적이고 자제력이 없고 쉽게 중독되고 광적이다	이상적이고 원칙주의적이고 정돈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이다	비판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엄격하고 조중하려 하고 독단적이다

2.4 에니어그램으로 본 아동의 성격

1) 중심 에너지별 특성

에니어그램은 원칙적으로 남녀노소에 크게 관계없이 특성은 비슷하지만, 이 장에서는 아동들의 특징을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머리형 아이들은 중심에너지가 머리에 있으므로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말이나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실수를 적게 한다. 혼자만의 독립된 시간과 공간을 가지기를 원하여 때로는

친구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고자 한다. 가슴형 아이들은 중심에너지가 가슴에 있으므로 감정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넘쳐난다. 애교가 많고 친구들이나 가족 간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사랑스런 아이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장형의 아이들은 중심에너지가 장에 있으며 매우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생각이나 말보다는 먼저 행동에 옮기는 행동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정의감이 있어서 약한 친구들을 돕거나 또래를 리드하는 역할을 잘 맡는다.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동들의 에너지중심별 특성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다.

<표 3> 에니어그램의 중심 에너지별 아동들의 특성

중심 에너지	중심 에너지별 성격특성
머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며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수줍어하고 숫기가 없어서 내성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 ▶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한 번 말해보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빨라서 단념도 빠른 편이다. 생각한 후 행동에 옮겨 실수가 적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며 놀 때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주로 혼자 노는 편이며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 ▶ 어릴 때부터 자신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내 것에 대한 개념이 남달리 강하며, 어려서부터 비밀이 많아 부모와 가까운 어른들도 때로는 아동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가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교와 정이 많고, 감수성과 표현력도 풍부하며 여린 감성을 가지고 있다. ▶ 부모 및 친밀한 어른들에게 의존적인 경향이 강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 어른이나 또래들에게 늘 주목받고자하고 인기를 얻는데 관심이 많고 주위에 보여 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중시하여 착한 아동으로 보여 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 원하는 것이 있으면 투정을 부려서라도 가지려고 하며 또래 친구들과 비교, 경쟁도 강한 편이라 다른 아이들이 가진 것을 금방 흉내 내고 따라하려 한다.
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 어른들에게 의젓하다는 칭찬과 어른 같다는 말을 종종 들으며, 어른들에게 예의가 바르고 시키는 것을 잘 따르는 행동을 보인다. ▶ 생각을 많이 하기 보다는 행동이 빠르고, 용기가 있으며 주도적인 태도가 강하다. ▶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책임감 있는 아동으로 학습 준비물도 부모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혼자서 잘 준비 하며 자존심이 무척 강해 힘든 일이라도 부모 및 주변의 가까운 성인에게 털어놓지 않으려고 한다. ▶ 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 때문에 부모나 주변의 어른이 관심을 기울이면 때론 반발하기도 한다. ▶ 친구들 간에 앞에 나서서 행동하며 약한 아이를 도와주려는 정의감이 강하다.

2) 9가지 성격유형별 특성

에니어그램은 인간의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9가지 성격유형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지만 두드러지는 한 가지의 기본 성격유형이 삶을 통해 한결같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 가지 성격유형의 안경을 쓰고 살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에니어그램 관점에서의 성격특성(중심 에너지, 성격 타입)은 사람들의 다양성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특히 성격이 완전히 고착되기 전인 어린 시절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1번 유형 아동의 기본 동기는 '완벽해야 한다'이다. 이들은 꼼꼼하고 성실한 모범생으로 실수를 두려워하고 원칙과 도덕을 중시한다. 어른들의 기대를 내면화하여 어른스럽게 판단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분노를 속으로 삭이는 편이다. 1번 유형의 아동은 삶을 좀 더 즐기면서 그들의 창조적인 면을 계발한다면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2번 유형 아동의 기본 동기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이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애정을 받으려 한다. 항상 생글 생글 웃으며 상냥한 모습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어필하려 한다. 외부의 꾸지람과 잔소리에 매우 예민하며 칭찬을 외적으로 표현하며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해하려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있으려고 노력하며 수줍음을 타거나 조숙한 행동을 하기도 하며 주의를 이끌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번 유형의 아동은 친구들을 아주 좋아하며 친구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신감과 거절당한 느낌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어 주다보면 자신의 모습을 찾고 계발시킬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창조적인 활동에 참가하게 하여 좀 더 직선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게 하면 균형 잡힌 아동이 된다.

3번 유형 아동의 기본 동기는 '성공해야 한다'이다. 칭찬과 인정을 받기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인기관리를 잘하는 이들은 교실에서 교사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친구들도 그들을 아주 좋아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열심히 경쟁하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이나 우선시 돼야 할 중요한 일에 정직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로 본인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살피고 자신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켜가도록 격려함으로써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끌 수 있다.

4번 유형 아동의 기본 동기는 '독특하고 특별해야 한다'이다. 이 유형의 아동은 타인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독창적인 면을 보이려고 하는데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무기로 다른 아동과는 전혀 다르게 사물을 보고 있다는 자기만의 미의식을 주변사람들에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만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길 바란다.

5번 유형 아동의 기본 동기는 ‘알아야 한다’이다. 이들은 혼자 지내는 것을 즐기고 혼자서 책을 읽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몰두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면 몸이 움츠러든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스스로 먼저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는 자세를 키워주어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번 유형 아동의 기본 동기는 ‘안전하고 확실해야 한다’이다. 순종적이고 다정다감한 면과 반항하고 고집부리는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자신감이 부족한 이들은 누가 권위를 가진 사람인지, 또 권위를 가진 교사나 부모님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신중한 태도를 꾸준히 믿어줌으로써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7번 유형 아동의 기본 동기는 ‘즐거워야 한다’이다. 새로운 흥밋거리를 만들어내고 모험을 몸소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이들은 이 세상을 최대한 재미있게 살기를 바란다. 따라서 항상 새로운 것, 즐거운 것을 쫓아다니며 자신의 명랑한 성격을 어필하면서 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활동 지향적이고 모험을 감행하며 다른 사람을 흥분하게 만든다.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친구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하며 어른들 곁에서 술책을 쓰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 누릴 자유를 빨리 얻고자 한다. 이들은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며 다재다능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열정과 재능을 인지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8번 유형 아동의 기본 동기는 ‘이겨야 한다’이다. 당당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주장이 강한 아동으로 거침없이 말을 한다. 따라서 이들은 강하고 힘에 넘쳐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며 정의를 관철시키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독립적이며 내적인 힘이 있고 투쟁 정신을 갖고 있으며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절대로 통제 당하지 않는 이 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헤아리고 성이 나면 말과 행동으로 공격한다.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떠맡으며 자신의 약한 점이 지배당할까봐 상대를 공격하는 이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것과 부모나 교사가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그들을 균형 잡힌 삶으로 이끄는 데 필요하다.

9번 유형 아동의 기본 동기는 ‘평화로워야 한다’이다. 이들은 편안한 분위기를 좋아하며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고 피한다.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며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자신의 소망이나 의견, 느낌이 소홀하게 취급되었다고 느낀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논쟁을 벌일 때, 신경을 꺼버리며 ‘착한’아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분노를 부인하거나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에니어그램의 각 유형에는 그 유형이 가진 아동의 성격특성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성을 살려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동들에게서 볼 수 있는 에니어그램 관점에서의 9가지 성격유형은 각 유형의 고유한 특성과 더불어 전체를 포괄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 <표 4>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4> 에니어그램의 중심 에너지별 아동들의 특성

	유형	성격특성
머리형	5유형	또래 친구들이나 동생들을 잘 돌봐 준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읽으며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무슨 일이든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를 더 배려하다가 자신의 일을 잘 못한다. 친구 사이에서 착한 아이라고 인정받는 상냥한 아동이다.
	6유형	재주가 많고 적응력이 있으며 자신감이 넘친다. 남에게 주목 받고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친구들과 경쟁심이 강하고 나에게 필요한 친구를 골라 사귀다. 말 솜씨가 있으며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동이다.
	7유형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며 친구들과 다르다고 여긴다. 지난 일을 잘 기억하고 사소한 것 까지 소중하게 간직한다. 사물을 창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질투심과 슬픔 감정에 빠지기도 한다. 예술적 감각이 남다른 감성이 풍부한 아동이다.
가슴형	2유형	또래 친구들이나 동생들을 잘 돌봐 준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읽으며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무슨 일이든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를 더 배려하다가 자신의 일을 잘 못한다. 친구 사이에서 착한 아이라고 인정받는 상냥한 아동이다.
	3유형	재주가 많고 적응력이 있으며 자신감이 넘친다. 남에게 주목 받고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친구들과 경쟁심이 강하고 나에게 필요한 친구를 골라 사귀다. 말 솜씨가 있으며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동이다.
	4유형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며 친구들과 다르다고 여긴다. 지난 일을 잘 기억하고 사소한 것 까지 소중하게 간직한다. 사물을 창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질투심과 슬픔 감정에 빠지기도 한다. 예술적 감각이 남다른 감성이 풍부한 아동이다.
장형	8유형	꾸밈없이 솔직하며 용감하고 적극적이다. 어려운 일도 밀어붙이는 용기가 있고 책임감도 강하다. 친구들을 거느리기를 좋아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보살펴 준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공격한다. 독립적이고 정직한 아동이다.
	9유형	여유 있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한다. 마음씨 좋고 친절하며 편견 없이 친구의 고민을 들어줄 줄 안다. 화를 잘 내지는 않지만 고집이 세고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일하기를 좋아한다. 인내심과 안정감이 있어 성실한 아동이다.
	1유형	정리정돈을 잘하고 시간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어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한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잘 따지고 이해하지 못한다.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정직하게 행동하는 아동이다.

3) 독서지도를 통해서 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의 특성

수잔 로즈(Susan Rhodes)는 무한한 가능성, 재능, 강점 등의 긍정적인 면을 불러일으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형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 있는 아동들의 경우, 기존 에니어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고착화된 동기, 강박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의 아동들에게 성격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수잔 로즈가 강조한 바와 같이 성격 특성의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부각시켜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서를 통한 품성 개발과 인성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여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독서교육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에니어그램의 유형별 아동들의 특성을 제시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그 자료에서 성격유형별로 핵심단어를 뽑아 <표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5>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핵심 단어

성격유형	핵심단어
1번	진지함, 체계적, 엄격함, 객관적, 양심적, 완벽함, 원칙적, 높은 성취, 철저함
2번	사교적인, 친절함, 친숙함, 대화, 친밀감, 사려깊음, 타인배려, 따뜻함, 관심, 돌보는
3번	자신감, 효율적인, 좋은 인상, 최선, 인정, 적응력, 자기개발, 이미지 중시
4번	외로움, 창조적인, 감정변화가 심함, 예민함, 독특한,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적인, 창의적인
5번	분석적인, 정보수집, 사색적인, 열중하는, 지적 호기심, 나서지 않는, 이성적인
6번	현신적인, 안정감, 충실함, 회의적인, 미리 준비하는, 책임감, 가정적인
7번	긍정적인, 호기심, 모험심, 열정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다양한, 변화무쌍함, 사교적인
8번	독립적, 영웅적, 자신감, 진취적, 다혈적, 의지력이 강한, 지도력, 결단력
9번	편안함, 평화로운, 참가한, 여유가 많은, 무심함, 참을성이 많은, 온순함

특히 아직 성격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아동들에게는 에니어그램의 긍정적인 특성을 살려서 독서교육에 활용해 본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수업을 하면서 성격유형별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머리형 6번 유형은 신중함을 기습형 3번 유형은 능동적인 태도를 장형의 9번 유형은 온순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독서수업 시 태도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에니어그램 유형별 독서수업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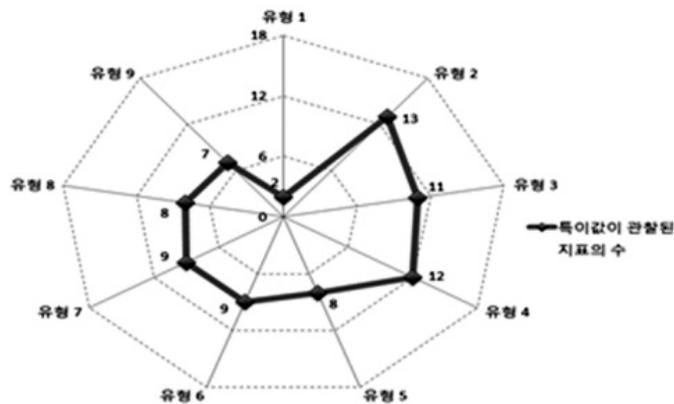
유형	관찰노트(초등학생)
1	<p>눈에 띄게 글씨를 잘 쓴다. 좋아하는 책으로 고른 도서는 본교 필독서이다. 외모가 반듯하고 이미지가 모범생처럼 보인다. 교사의 말에 집중을 잘 하는 편이지만 경직된 표정으로 긴장을 잘 풀지 않는다. 교사가 농담을 걸어도 잘 받아치지 않고 수줍어한다. 일단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진지한 느낌을 준다. 항상 질문을 많이 한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교사를 바라보며 궁금한 것을 바로 바로 질문했다. 질문을 잘 하면 서도 막상 자신이 발표를 하는 시간에 소극적이다.</p>
2	<p>자신의 활동지 여러 곳에서 친구, 우정, 다른 사람 등의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이 학생은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고 교사의 지시에 밝은 표정으로 잘 따른다. 자신감이 약간 결여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신의 활동 내용을 발표할 때에도 많이 수줍어하는 편이다. 교사를 보고 늘 생글생글 웃어 보이지만 결과물 작성에는 그다지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 온순한 태도를 보이지만 수업시간에 아주 열의를 보이지는 못하고,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날의 수업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을 보인다.</p>
3	<p>다른 수업시간에도 우수한 학생으로 독서수업에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교사의 질문에 가장 답을 빨리 하고 스스로 발표를 잘 한다. 성취동기가 높아서인지 위인전 활동시간에도 위인전 분석을 즐겨워하고, 모든 활동시간에 항상 즐겁고 의욕적으로 임한다.</p>
4	<p>또래보다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결과물이나 활동지를 누가 보느냐의 문제, 평가의 문제에 대해 가장 예민한 태도를 보이며 관련 질문을 많이 한다. 가정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독서수업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수업내용이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막상 활동시간에는 교사의 언행에 대하여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 관찰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p>
5	<p>자립심이 강하고 냉철해 보인다. 똑똑하고 지적호기심이 많아 보이며, 활동지를 작성 할 때 '왜냐하면~ /~ 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논리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수업시간 중에 스스로 먼저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하지 않지만, 교사가 발표를 요구하면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발표한다. 논리적이고 생각이 많으며, 전체적인 수업분위기에 상관없이 수업내용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말수가 적고 표정변화가 없어서 수업을 즐겨워하는지 무슨 불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일단 교사의 지시에는 순응하고 활동지를 분석해보면 매우 예리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러 인지하지 않으면 수업에 같이 참여하는지를 잠시 잊을 만큼 존재감이 없다.</p>
6	<p>또래 학생보다 무척 어른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교사나 수업에 대해 특별한 애정도, 거부도 표현하지 않으며 항상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내향적인 성향을 보인다.</p>
7	<p>분위기가 언제나 밝으며 수업이 재미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 판타지소설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일지에 사용하는 표현도 재미있다. 지루하다 식의 흥미 위주의 단어가 대부분이다. 책 읽는 걸 싫어한다고 솔직히 밝힌다. 활동지를 배부 할 때는 항상 거부 반응을 보인다. 참여한 여학생 중 교사가 통제 하기 가장 힘든 학생이다.</p>
8	<p>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거나 주장을 할 때 어조가 매우 강하다.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다른 학생들을 압도할 만큼 강하며 교사에게 자신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고 불만도 서슴없이 표출한다.</p>
9	<p>복합적인 성향을 보인다. 본인의 결과물 작성보다는 다른 학생들의 발표 시간에 좀 더 잘 집중한다.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수업시간 중에 까불거리지만 온순하여 교사에게 거친 말이나 반항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집중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수업의 흐름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발표는 안하지만 본인 발표기회가 주어지면 머뭇거리기 없이 발표한다. 하지만 논리적이거나 일목요연한 발표를 하지는 못한다.</p>

3. 텍스트 선정

텍스트 선정은 에니어그램의 3가지 타입의 중심에너지를 잘 이해 할 수 있거나 다양한 9가지 스타일의 유형이 스토리 또는 주인공을 통해 나타난 작품을 선정한다. 또, 선행연구 『어린이·청소년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목록개발 및 독서지도 방안 연구』(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와 장르를 적용하여 텍스트를 선정하거나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기능과 장점의 가치가 포함된 도서를 텍스트로 선정한다.

〈표 7〉 에니어그램 9가지 유형의 심리적 기능과 장점

유형	심리적기능	장점
1	합리성/사회적 책임감	침착
2	감정이입/이타주의	겸손
3	자기존중/자기개발	정직
4	자의식/예술적 창의성	마음의 평안
5	열린마음/독창적 사고	애착하지 않음
6	동일시/사회협력	용기
7	정열/실용적 행동	절제
8	자기주장/지도성	적절한 힘
9	수락성/수용성	행동으로 옮김



〈그림2〉 성격유형별 도서 분석의 특이값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과 표에처럼 성격유형별 선호장르와 문학도서의 선호테마가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지표	측정범주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장르	한국 십진 분류	과학			●			▽			
		문학			▽	▽		◎			
		역사				◎		▽			
		인문 사회		◎	◎		▽				

〈그림3〉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장르

〈표 8〉 성격유형별 문학도서의 선호테마

분석영역	분석지표	측정범주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유형9
테마	테마	과학/역사	◎								◎
		사랑/우정			●						
		의지/투지/극복						◎			
		자기 성장				◎			◎		
		환상/탐험/추리		◎			◎		◎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서들의 서평을 수집하여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키워드

성격유형	키워드
1	경제, 사회, 자연과학, 생태계, 운명, 성장, 고민, 철학, 성장, 전통문화, 역사, 인물, 그리움
2	심리, 이미지, 자기관리, 추리, 탐정, 용기, 유머, 상상력, 우정, 성, 사랑, 극복, 투지, 감동, 재치
3	상식, 문화, 지혜, 교양, 정보, 요리, 인권, 민족, 여성, 입양, 꿈, 놀이
4	인간관계, 감동, 자기성장, 모험, 세계사, 한국사, 여왕, 예술, 우아함, 아름다움
5	지리, 지혜, 역사, 호기심, 선비, 지식, 성장, 자신감, 어른, 학교, 믿음
6	자아, 극복, 용기, 믿음, 칭찬, 성장, 소통,
7	자기계발, 일기, 상상력, 고난, 탐험, 사투, 모험, 순정, 무협, 공상, 아이디어
8	경제, 가치관, 돈, 신문, 뉴스, 성적, 자기관리, 문화, 기후, 극복, 왕따, 고민, 콤플렉스, 차이, 장애, 이동폭력, 생명, 전쟁, 학대, 화, 거짓, 정체성, 개혁, 환경문제
9	삼척, 이해, 감동, 고민, 또래관계, 가족사랑, 유적, 자기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독서지도의 텍스트선정기준과 더불어 에니어그램의 성격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선정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4. 독서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에니어그램을 적용한 독서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을 탐색할 수 있는 성찰의 힘을 키워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식하여 다름은 틀림이 아닌 다양한 개성과 특성이라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질과 성격의 경향을 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설계하여 잘못된 성향으로 고착되지 않고 자신의 성향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텍스트선정에 주력한다.

첫째, 성격유형 탐색을 통해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나누어 모듬을 구성한다. 둘째, 모듬별

로 공동 활동을 하고 모둠별 발표를 통해 자신이 속한 모둠원들 간의 공통점을 인지하고 다른 모둠과의 차이를 찾아내어 비교하도록 한다. 셋째, 머리형, 가슴형, 장형의 인지, 정서, 행동의 영역이 골고루 반영되는 다양한 독서 후 활동을 통하여 균형 잡힌 에너지를 체험 할 수 있게 운영한다.

5. 나가는 말

독서교육의 활발한 발전으로 많은 독서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동안 개발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더불어 인간의 성격유형을 에니어그램이란 도구를 통해 독서와 연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초등학교도서관이라는 현장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의 학생들을 주 이용자로 만나는 곳이라 아무래도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탐색을 주로 하게 된다.

다양한 학생들이 교실에서 만나고 다양한 선생님들로부터 학습하며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 수많은 상황을 접한다. 이런 학생들에게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통해 좀 더 건강한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독서를 통해서 실시한다면 독서가 주는 즐거움과 유익함과 더불어 품성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윤운성. 2000. 『한국형 에니어그램 1단계』. 서울: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 윤운성. 2000. 『한국형 에니어그램 프로파일』. 서울: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 한윤옥. 2008. 『독서교육과 자료의 활용』.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윤옥. 2010. “성격유형과 독서성향 관계에 기초한 독서치료 가능성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5-59.
- 한윤옥. 2012. 『어린이·청소년의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목록개발 및 독서지도 방안연구』. 서울: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 한윤옥, 백진환, 장해숙, 이보라. 2012. “어린이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도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5-34.
- 한윤옥, 조미아, 고정원, 백진환. 2012. “성격유형을 적용한 청소년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77-97.

작은도서관 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 프로그램

A반

최용훈
의왕부곡중학교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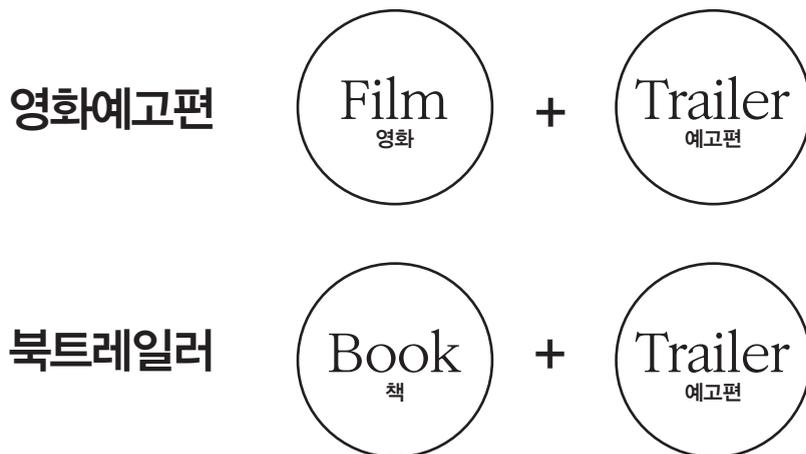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 프로그램

최용훈(의왕부곡중학교 사서)

1. 북트레일러

1.1 정의와 기능

북트레일러(book-trailer)는 영화의 예고편인 필름트레일러(film-trailer)에서 유래하였으며, 출간을 앞둔 서적이나 이미 출간된 서적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책을 구매하도록 설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모든 동영상을 지칭한다.



<그림 1> 북트레일러란?

최초의 북트레일러는 Christine Feehan의 저서 ‘어둠 속의 심포니(Dark Symphony)’를 위한 북트레일러로 200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서적컨벤션에서 소개되었다. 북트레일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2년 초반이었지만 북트레일러라는 용어는 2005년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아이필름 등과 같은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비디오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기 위한 사이트에 업로드 되면서 대중화 되었다. 또 2011년 9월에는 인터넷북클럽 사이트인 Authors Speaking에 의해 제1회 북트레일러 대회(First Annual International Book Trailer Awards)가 열렸고, 아마존에서는 북트레일러를 도서판매 촉진을 위한 도구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북트레일러는 출판 마케팅을 위한 프로모션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7월 소설가 김영하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의 북트레일러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언에 의해 제작된 이후 북트레일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이언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북트레일러는 비디오 예술의 실험성이 강한 영상물이었다. 이후 출판사들은 북트레일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초보적 수준의 컴퓨터 그래픽이나 사진 자료, 저자 인터뷰 등을 활용하던 단계에서 실사 영화나 뮤직비디오 같은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소설가 정유정의 ‘7년의 밤’은 북트레일러 활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7년의 밤’ 북트레일러는 발행과 동시에 공개되어 출간 한 달 만에 7만부가 판매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15개 영화사로부터 판권구매 제안을 받았으며, 판권 1억원, 러닝 개런티 5%에 영화 판권을 판매하였다.



〈그림 2〉 북트레일러 활용 사례; 정유정의 ‘7년의 밤’

이렇듯 북트레일러는 아날로그인 책으로의 접근통로를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열어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도서출판에도 콘텐츠 제작자와 멀티미디어 프로듀싱을 위한 출판디렉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북트레일러 제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출판 서적 마케터와 저자, 전문 비디오 제작자들이다. 북트레일러가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영화 예고편과 다른 점은 북트레일러는 제작자가 책에서 문자로 쓰여진 내용을 시각적 영상물로 전환시켜 제작된다는 점이다.

북트레일러의 주요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출간을 앞둔 서적이나 이미 출간된 서적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고 책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문자보다 영상물을 선호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럴마케팅¹⁾에는 매우 효과적인 홍보도구가 된다.

북트레일러는 저자-출판사-독자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서적 유통 구조를 디지털 시대의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서적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출판 마케터들은 물론 서적 구매자들의 북트레일러 활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북트레일러의 조건

북트레일러의 제작 목적이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책을 읽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북트레일러에는 일정한 조건이 요구된다. Joanna Penn은 훌륭한 북트레일러는 마케팅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공적 북트레일러의 7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양극화시켜라. 독자가 아닌 사람은 북트레일러를 보는 순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꺼버리게 하고, 독자인 사람은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보게 만들라는 뜻이다. 현대 마케팅에서의 STP전략²⁾을 고려하면 독자가 탐닉하도록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책이 아니라 저자에 대하여 말하라. 이 조건은 특히 실화일 경우에 더 효과적이다.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실체 즉, 그의 가치관, 개성, 신뢰성 등에 대한 감각을 느끼도록 제작함으

-
- 1)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바이러스(Virus)와 오럴(oral)의 합성어로, 입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지듯, 소문 등을 통해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에 대한 평이나 의견이 스스로 퍼지게 하는 마케팅 방식을 이 야기 하며, 입소문마케팅이라고도 한다.
 - 2) STP전략: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타깃설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의 앞 글자를 모아 만든 합성어이다. 고객 행태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고객들 중 어느 그룹을 타깃으로 할지 선정하고, 고객의 마음에 제품의 위치를 심어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로써 주인공이 책을 쓸 자격이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트레일러가 주인공과 독자들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셋째, 감성에 호소하라. 북트레일러는 책의 주인공에 대한 실체를 진실하게 알림으로써 독자들의 감성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책의 출간이 단지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자체에 대한 것을 담고 있음을 표적 독자들이 감성적으로 느끼도록 제작해야 한다.

넷째, 북트레일러 자체로 스토리를 말해야 한다. 즉, 북트레일러 안에서 불확실성의 강약으로 이야기의 긴장감을 조정하면서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유명인이 말한 것을 인용문으로 사용하라. 유명한 문구를 인용하면 독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용되는 문구는 독자의 관심과 연계되도록 한다.

여섯째, 티저마케팅³⁾을 이용하라. 북트레일러는 책이 출간되기 전 어떤 책이 출간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 북트레일러는 책에서 다루어질 내용에 대한 윤곽을 그려줌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요구하라. 북트레일러가 마지막 단계에서 독자들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것은 북트레일러가 주장하는 메시지에 대한 동의이다. 성공적인 북트레일러는 후반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하고, 그것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3 북트레일러의 유형

북트레일러는 표현 전략에 따라 <표1>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티저마케팅(Teaser Marketing): 최초의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최대한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마케터가 소비자 자신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표 1〉 북트레일러의 6가지 유형

유형	설명	기법	장·단점
정지사진형	여러 장의 정지사진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	나레이션에 따라 연속되는 정지사진을 카메라가 줌인아웃(zoom in & out)하며 변화를 주면서 메시지를 전개	-메시지를 단순화시킴으로써 독자들이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단순한 화면구성으로 영상물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흥미를 느끼기 어렵게 하거나 답답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인터뷰형	출판도서의 저자, 편집자, 독자 혹은 인터뷰를 이끌어갈 유명인을 등장시켜 인터뷰하는 형식	인터뷰하는 사람(interviewee)이 책의 탄생 배경, 내용, 등장인물의 성격 유형 등에 대하여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메시지를 전개	-출판도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긴 인터뷰 내용이 지루함을 야기할 수 있다. -출간도서의 주제와 저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기 어렵다.
문자설명형	화면에 문자가 나레이션 내용에 따라 출현하는 형식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나레이션 내용이 문자로 화면에 등장하면서 메시지를 전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문자로 확인시킴으로써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문자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영상세대에게는 관심을 끌기가 힘들다.
스토리 전개형	책의 극적인 장면을 영화처럼 촬영하여 제작하는 형식	실제 배우를 고용하여 영화를 촬영하듯이 극적인 장면을 촬영하여 메시지를 전개	-실제 장면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용이하다. -독자 고유의 영역인 등장인물들에 대한 자신만의 상상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제작을 위한 고비용이 발생한다.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과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형식	컴퓨터그래픽의 다양한 기법과 스톱모션기법을 이용하여 메시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추상적 움직임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개	-창의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다. -독자들의 상상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다. -영상물에 익숙한 독자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고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조합형	위의 유형들 중 2개 혹은 그 이상을 조합하여 제작하는 형식	위의 기법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메시지를 전개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조합하여 창의적인 유형을 만들 수 있다. -과도한 유형과 기법 조합으로 영상이 조잡해 질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정지사진형으로 여러 장의 정지 사진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형으로 내레이션에 따라 연속되는 정지 사진을 카메라가 줌인아웃(zoom in & out)하면서 메시지를 전개한다. 정지사진형은 메시지를 단순화시킴으로써 독자들이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화면구성으로 영상물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답답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인터뷰형으로 출판도시의 저자, 편집자, 독자, 혹은 인터뷰를 이끌어갈 유명인이 등장하여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 책의 내용이나 등장인물의 성격유형 등에 대하여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메시지를 전개하는 형식이다. 출판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긴 인터뷰 내용은 지루함을 야기하고, 책의 주제와 저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중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세 번째 유형은 문자설명형으로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내레이션 내용이 문자로 화면에 등장하는 형식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북트레일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문자로 확인시킴으로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문자에 집중도가 낮은 영상세대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네 번째 유형은 스토리전개형으로 책의 내용 중에서 극적인 장면을 실제 배우를 등장시켜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촬영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내고자 하는 형식이다. 스토리전개형은 독자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자 고유의 영역인 등장인물들에 대한 상상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작 시 비용이 증가한다.

다섯 번째 유형은 애니메이션형으로 컴퓨터그래픽 작업과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형식이다. 이 유형의 장점은 독자의 상상력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으며 영상물에 익숙한 독자의 기대 또한 충족시킬 수 있는 동시에 독특한 창의력을 기반으로 북트레일러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업방식과 기법에 따라 제작기간이 길어 질 수 있으며, 고비용이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유형들을 2개 혹은 그 이상을 조합하여 제작하는 조합형이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으로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유형의 북트레일러를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고, 창의적인 유형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계획성 없이 여러 유형의 북트레일러를 조합하거나 편집기술이 미숙할 경우 조잡한 북트레일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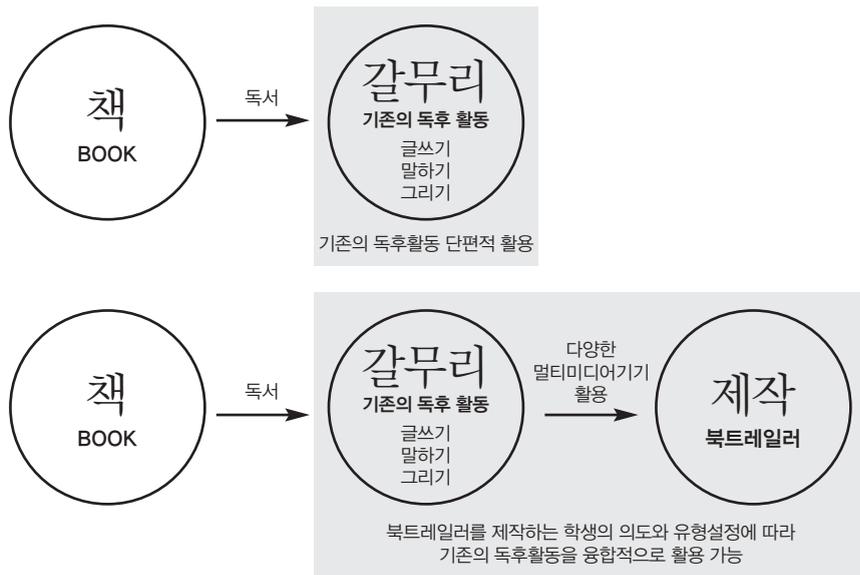
2. 독서, 영상의 날개를 달다!

2.1 독서활동으로써 북트레일러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기존의 단편적인 독서활동이 아닌, 정보통신매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 그리고 기존의 독후활동들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책 소개 영상인 북트레일러를 제작하는 새로운 형식의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많이 읽는 양적인 독서가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읽고 창의적으로 수용하는가 하는 질적인 독서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독서활동이란 책을 읽기 전·중·후에 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읽을 책을 선정하기 위한 탐색과정을 비롯하여 독서하는 과정, 독서 후에 행하는 모든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

독후활동의 3가지 그룹은 다시 결과물의 형식에 따라 크게 글쓰기, 말하기, 그리기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독후활동은 이 형식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은 기존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융합하여 사용 가능하며, <그림 1>과 같이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3> 기존의 독서활동과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의 차이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은 제작하는 학생의 제작의도와 유형설정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독서활동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즉 제작하는 학생의 창의성과 상상력에 따라 표현형식에 제한이 없고, 다양한 교과에 적용이 가능하다. 북트레일러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혹은 캐릭터)의 성격 및 심리과학,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북트레일러는 제작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줄거리 이해능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할 수 있는 능력과 이야기 재구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창의성 신장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적 독서활동 도구 가 될 수 있다. 독서활동의 결과물로 나온 북트레일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북트레일러와 차별성이 있으며,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독후활동과도 차별성을 지닌다.

2.2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 과정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 과정을 다음과 같이 9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단계는 도서 선정 과정이다. 독서활동을 하기 전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메시지와 주제가 뚜렷한 도서를 탐색하고 선정해야 북트레일러 제작 시 북트레일러의 주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용이하다.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선정한다면 학습적 효과도 클 것이다.

2단계는 책 읽기, 독서의 과정이다. 독서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는 줄거리 요약 과정(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북트레일러 제작은 선정도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고 북트레일러 제작의 구성을 시작해야 한다. 주인공의 심리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북트레일러 제작 의도 및 유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4단계는 제작 구상 과정이다. 독서와 책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줄거리를 바탕으로, 북트레일러의 유형과 내용,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작 구상 과정을 통해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영상에 쓰일 자료(사진, 영상, BGM 등)는 직접 제작할 것인지, 제작한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자세히 기록해두어야 한다.

5단계는 스토리보드 작성 과정이다. 북트레일러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선정도서를 자신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북트레일러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 과정은 제작하는 학생의 의도에 따라 기존의 독서활동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스토리보드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자료수집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북트레일러 제작 시 화면 구성과 편집이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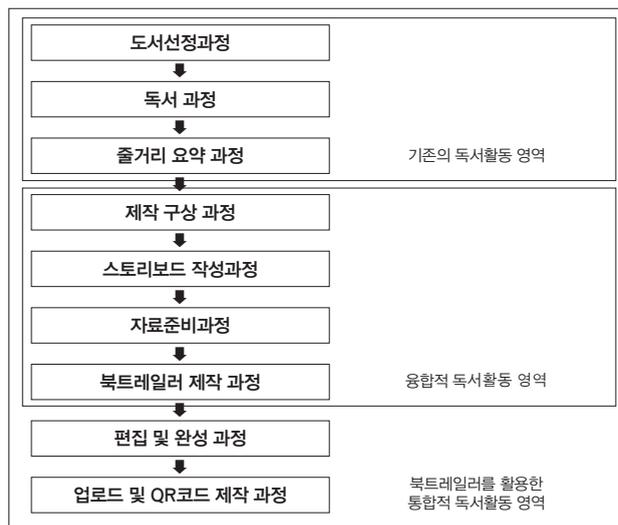
6단계는 자료준비 과정이다. 작성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선정도서와 제작하려는 북트레일러의 분위기에 맞는 사진, 영상자료, 효과음, 배경음악을 수집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그리거나 촬영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선정도서의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발췌 하거나, 3단계(줄거리 요약과정)와 5단계(스토리보드 작성 과정)를 바탕으로 줄거리를 요약해서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제작하는 학생의 창의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한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7단계는 북트레일러 제작 과정이다. 다양한 멀티미디어기기를 활용하여 동영상 편집, 음악 편집, 사진 편집 등을 할 수 있다. 사전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촬영기법을 지도하면 제작이 용이하며, 다양한 촬영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북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와 친숙한 다매체세대가 가장 흥미 있어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8단계는 편집 및 완성 과정이다. 제작한 북트레일러를 보다 간결하고, 완성도 있게 편집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선정도서의 주제나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자하는 메시지가 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선정된 도서와 북트레일러의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넣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의 다양한 독서활동과 다양한 멀티미디어기기를 활용해 제작된 북트레일러를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9단계는 업로드 및 QR코드 제작 과정이다. 이 과정은 완성된 북트레일러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다양한 독서활동과 멀티미디어기기를 융합하여 활용해 제작한 북트레일러는 제작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독서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호기심을 증폭시켜 다매체세대에게 효과적인 홍보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림 4〉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 과정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은 9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기존의 독서활동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다. 4단계에서 7단계까지는 융합적 독서활동 영역으로, 기존의 다양한 독서활동을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활용하는 과정이며, 선정도서 줄거리와 내용, 작가의 관점, 등장인물(캐릭터)의 성격과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또한, 중요한 부분의 발췌능력과 이야기 재구성능력을 필요로 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8단계 편집 및 완성 과정을 거쳐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의 최종결과물이 탄생하고, 9단계를 통해 공유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책·갈·피 독서활동 모형

탐색과정을 거쳐 선정한 도서를 읽고, 기존의 독후활동을 융합하여 활용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로 제작된 북트레일러는 업로드와 QR코드 제작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여 홍보효과와 독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순환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2.3 북트레일러 제작 시 유의사항

독서활동으로써의 북트레일러는 제작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작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잘 만들어진 북트레일러를 유형별로 많이 감상한다. ‘창작은 모방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다양한 북트레일러를 유형별로 많이 감상하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북트레일러의 유형과 방향을 쉽게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만들어진 북트레일러를 참고만 하는 것이지 그대로 모방해서 제작하는 것은 안 된다.

둘째,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고 북트레일러를 제작해야 한다. 북트레일러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작하고자 하는 책의 내용과 줄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 할 수 없다.

셋째, 스토리보드는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한다. 스토리보드는 영상제작에 있어 필수적이다.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과정은 기존의 독후활동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영상제작에 있어 설계도와 같이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결말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책의 중요 내용이나, 갈등양상, 절정 부분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과도한 도서 내용의 제시와 결말의 노출은 오히려 북트레일러를 감상하고 책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람의 흥미를 잃게 한다.

다섯째,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다. 독서활동으로써의 북트레일러 제작은 제작하는 학생들이 기존의 다양한 독서활동을 융합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북트레일러는 독서를 권장할 수 있는 홍보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여섯째, 책의 내용과 영상의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선곡한다. 영상 속 배경음악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북트레일러에 더욱 더 집중하게 만들어 준다. 북트레일러는 화면 속 영상이 주는 메시지와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에 맞는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이 주는 영향도 크다.

일곱째, 저작권 또는 출처는 반드시 밝혀준다. 북트레일러 제작 시 모든 사진과 영상을 직접 그리거나 촬영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밖에 없다. 북트레일러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여덟째, 상징적인 표현을 할 경우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작품 속에서 상징은 비유와 은유로도 많이 활용된다. 영상 속에서 특정한 사물 혹은 인물에 대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할 경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홉째, 재생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제작한다. 선정한 도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려고 너무 짧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도서의 내용을 너무 자세히 표현하려고 하다보면 북트레일러 영상의 재생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북트레일러 영상의 재생시간은 1분에서 2분 내외로 만드는 것이 적당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한 3분은 넘지 않도록 한다.

열재, 간결하고(혹은 규칙성 있게), 깔끔하게 제작하고 편집한다. 북트레일러를 제작하는 것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메시지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제작하는 학생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의욕이 앞서 너무 많은 사진과 텍스트 그리고 과도한 영상효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와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한다.

열한째, 책의 서지사항(표지, 제목, 저자, 출판사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책의 서지사항은 북트레일러 영상에 어느 위치든지 포함되어야 한다. 서지사항은 가능하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넣는 것이 좋다.

2.4 북트레일러의 공유 및 홍보

1) 북트레일러 공유 매체로 유튜브

유튜브는 2005년 12월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6년 10월 구글에 약 16억달러에 인수되면서 동영상 UCC붐을 일으켰다. 한국에서도 동영상 UCC는 이미 보편화될 만큼 확산되었으며, 단순한 개인의 흥미 차원을 넘어서 방송, 쇼핑, 연예, 정치, 마케팅, 광고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었다.

한 예로 UCC와 유튜브의 가장 큰 수혜자로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들 수 있다. 사이의 ‘강남스타일’은 2012년 7월 15일에 음원과 함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다. 공개와 동시에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사이의 성공에는 유튜브의 힘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강남스타일’ 패러디물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UCC 콘텐츠 등을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접한 유명인들의 글이나 추천 등이 올라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이는 미국의 대형 음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2012년 9월 4일 유튜브 조회수 1억 돌파, 그 이후 단 한 달만에 4억을 돌파하였다. 9월 22일 유튜브 역사상 최다 ‘좋아요’를 기록하면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 2014년 5월 유튜브 사상 최초로 조회수 20억건을 넘어섰으며, 2015년 2월 22억 5천만 건을 돌파하면서 그 기록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의 결과물로 학생들이 제작한 북트레일러는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다. 이 때 공유를 위해 가장 적합한 매체가 유튜브이며, 이는 검색과 공유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독서활동의 결과물로 북트레일러를 제작한 학생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감상한 학생은 북트레일러에서 소개하는 책에 관심을 갖게 되며,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2) 북트레일러 홍보수단으로 QR코드

QR코드는 Quick Response Code의 약자로 1994년 덴소 웨이브사(Denso Wave)가 개발한 2차원 코드 방식의 하나로 특허를 포기함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이다. 기존 바코드는 한 방향으로만 정보를 저장하는 반면, QR코드는 가로와 세로 두 방향으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림 6〉 QR코드와 바코드의 차이

QR코드는 자체적으로 오류 정정 기능이 있으므로 일정부분 오염되거나 일부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코드를 읽어 들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QR코드에 색상 및 로고를 삽입하여 QR코드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QR코드의 경우 360도 어떤 방향에서든 고속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QR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위치 찾기 심벌(position detection pattern)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7〉 다양한 디자인의 QR코드

2.5 북트레일러 제작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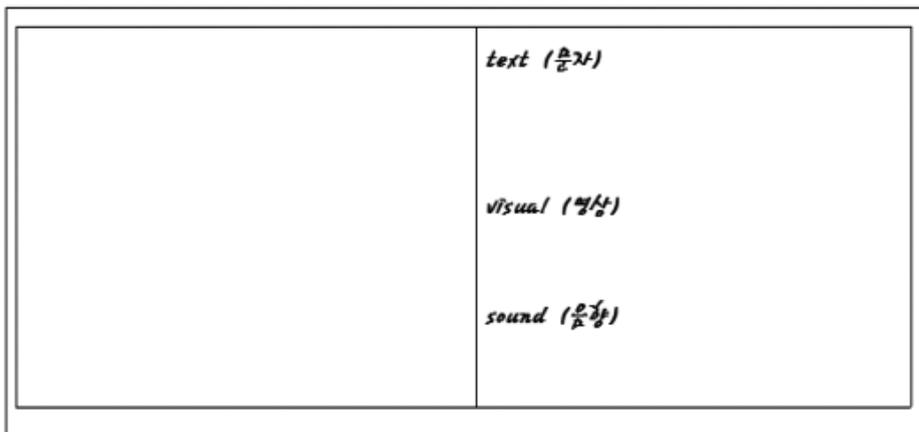
 <p>북트레일러 Book-Trailer 제작노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트레일러의 정의 및 기능 2. 독서활동이란? 3. 기존의 독후활동과 종류 4.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통합적인 독서활동 ('책·갈·피' 독서활동 모형) 5. 북트레일러 제작 과정, 제작 시 주의해야 할 사항 6. 북트레일러 유형 7.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8. 기본적인 영상촬영 기법(스마트폰 어플이용) 9. 줄거리 및 스토리보드(콘티) 작성 														
<p>■ 스토리보드(콘티) 작성</p>															
<table border="1"> <tr> <td colspan="2">제목</td> </tr> <tr> <td>장르</td> <td>출판사</td> </tr> <tr> <td colspan="2">줄거리</td> </tr> <tr> <td colspan="2">북트레일러 제작 방법</td> </tr> <tr> <td colspan="2">북트레일러 시놉시스</td> </tr> </table>	제목		장르	출판사	줄거리		북트레일러 제작 방법		북트레일러 시놉시스		<table border="1"> <tr> <td>장르</td> </tr> <tr> <td>주요인물(역사적 인물 및 성향)</td> </tr> <tr> <td>시놉시스</td> </tr> <tr> <td>제작</td> </tr> </table>	장르	주요인물(역사적 인물 및 성향)	시놉시스	제작
제목															
장르	출판사														
줄거리															
북트레일러 제작 방법															
북트레일러 시놉시스															
장르															
주요인물(역사적 인물 및 성향)															
시놉시스															
제작															

〈그림 8〉 북트레일러 제작노트

북트레일러 제작노트 9장 ‘줄거리 및 스토리보드 작성’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목, 저자, 출판사’ 부분에서는 선정도서의 서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줄거리’ 작성을 통해 선정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북트레일러 제작 유형 설정’에서는 제작하고자 하는 북트레일러의 유형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조합형으로 제작할 경우 조합된 유형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였다. ‘북트레일러 시놉시스’에서는 제작하고자 하는 북트레일러의 전체적인 제작과정과 북트레일러의 간략한 줄거리를 기록하도록 구성하였다.

선정도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사고가 가능하도록 작품을 집필한 작가, 작품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등장인물, 작품을 읽는 나의 관점을 분석하여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상제작에 있어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12~20cut정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다. 여백으로 구성된 왼쪽 칸에는 제작하고자 하는 북트레일러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림이나 문자로 표현하고, 오른쪽 칸은 화면상에 나타나는 문자, 영상, 음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표현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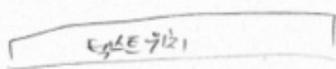


〈그림 9〉 스토리보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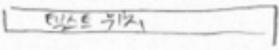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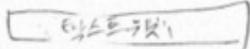
<p>작가의 관점</p> <p>작가 "누군 형제처럼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만 선택할수있지만 모든 것이 권태롭게 유혹 하듯이 새겨져서 한 걸 다른 걸로 돌려 두갈래가 두가지. 어떤 형제처럼 어릴수록 함께 해준 싶었다" 라고 말했다.</p> <p>"형제"라는 단 두번 "작가"를 딱 두번씩 함께 쓴적이있다.</p> <p>은 어찌 근원적, 제아찌 등에 대한 관습 등을 이미 최선의 입장에서 선택 시선으로 나타냈다. 선택이라 같은 일은 당혹스러 채움방법이 따라 성격이 달라질수 있다것을 표현</p>	
<p>동작인물(캐릭터)의 관점 및 성격</p> <p>근원: 선택이란 힘든 일 가깝게 눈은 환절한다. 같은걸 반복해하고 되찾아온다.</p> <p>제아찌: 선택이란 어떤 관습이라야 같은 선택한다. 선택은 약간의 고통이다.</p> <p>은: 근원적 둘이 함께한다. 빛난다.</p>	
<p>나의 관점</p> <p>복제물! 3인칭형. 주인공이 선택해 어떤 길일지 선택의 심한 두려움에 대해 보듯.</p> <p>신원정!</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p>text (문자)</p> <p>그 안 머리 내 개를 물려보려도, 단 시대를 내로 임하는 관습처럼 디자인을 무공을 했다.</p> <p>visual (영상)</p> <p>무어그림을 한층더 내로 문은 보게끔. 조립한가. 텍스트나 sound (음향) 같이 시선처럼.</p>
	<p>text (문자)</p> <p>그렇게 신선한것을 보면 역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문이 앞선 아닐까? visual (영상) [문자] 기차 [문자] 나르나 시선시선]</p> <p>같은새 sound (음향)</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p>text (문자) 기억하지 못했던 과거 [삽입, 확대, 축소]</p> <p>visual (영상) 감정</p> <p>sound (음향) 뒤늦게만 - 일주일만 서양</p>
---	---

	<p>text (문자) 점점 들어왔다. 그 [구석구석]</p> <p>visual (영상) 경험이 있었다고 가문에서부터 받아온</p> <p>sound (음향)</p>
---	--

	<p>text (문자) ... 돌아오는 과거 기억들 그 속에서 멀어버린 시간 [프레임과로 나란남/환상]</p> <p>visual (영상) 작은 화면의 움직임</p> <p>sound (음향)</p>
--	--

	<p>text (문자) 유치원때가 커머치 하듯 [포워드 후라/회상]</p> <p>visual (영상)</p> <p>sound (음향)</p>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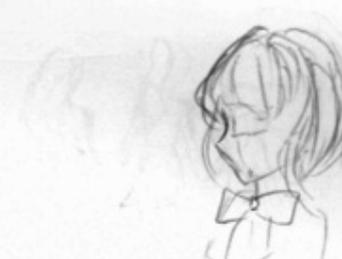
	<p>text (문자) 엄마가 음박질을 기억... [페인트 / 혼성.]</p> <p>visual (영상) 아이 그려줄 그림.</p> <p>sound (음향)</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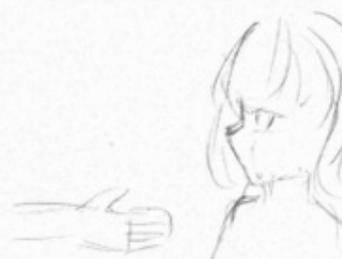
	<p>text (문자) 아빤... 나를 때렸던 일 [귀라 동생 / 페인드로 사라짐]</p> <p>visual (영상)</p> <p>sound (음향)</p>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p>text (문자) > 아빤 내가 자빠 알고있잖아 > 아빤이런 철학같이 믿고 싶었던 것같다. [혼성 / 자빠] 소년 정음 / 마자방 혼성.]</p> <p>visual (영상) 배경 - 감성적,</p> <p>sound (음향)</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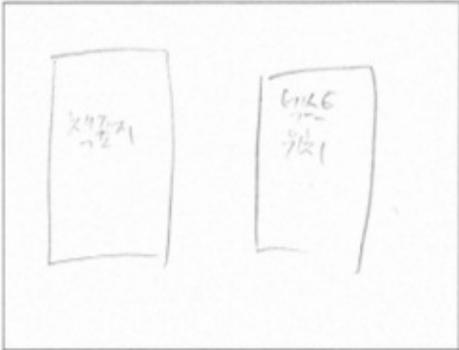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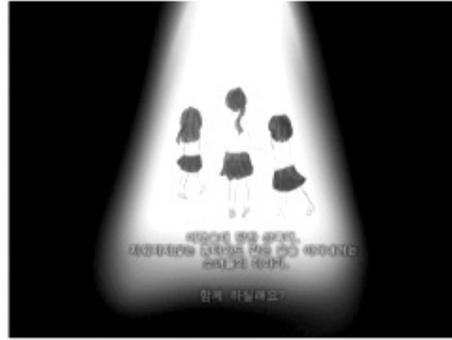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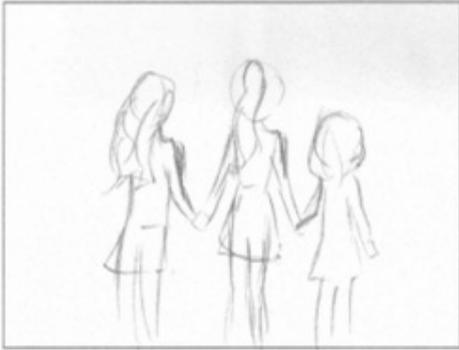
	<p>text (문자) "아, 내가 그 작은우연이 아니었어?" [포드업은 귀차리 발나게 한 문과 피는 날개]</p> <p>visual (영상) 귀차리 그림.</p> <p>sound (음향)</p>
--	---

	<p>text (문자) 돌아갈 거예요. 손은 심하게 감정을 전달하려 공명되어, 마냥 가냘픈 손.</p> <p>visual (영상)</p> <p>sound (음향)</p>
---	--

	<p>text (문자) 스며들기</p> <p>visual (영상) 공기</p> <p>sound (음향)</p>
---	--

	<p>text (문자) 같은 이름의 손바 소리가 온기가 온 내뿜는다.</p> <p>visual (영상)</p> <p>sound (음향)</p>
--	--

	<p>text (문자)</p> <p>visual (영상) [잠깐 보여준 시퀀싱]</p> <p>sound (음향)</p>
---	--





〈그림 10〉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활동 결과물로 제작한 QR코드 예시

B반

- 인문고전 독서교육 프로그램 이아영
-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이보라

작은도서관 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

인문고전 독서교육 프로그램

B반

이아영
구성중학교 사서

인문고전 독서교육 프로그램

이아영(구성중학교 사서)

제1장 고전과 독서교육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¹⁾을 의미한다. 고전은 과거에 창작되어 후세에 모범이 되어 있는 작품이며, 하나의 전통을 수립, 지속시키는 데에 뚜렷이 기여하고 있는 작품으로 특정의 문화 전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자 그 표현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영속적으로 지닌다²⁾. 고전은 그동안 독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고전은 형식적인 학교 교육으로서의 독서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의 독서 생활 차재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운동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을 받고, 읽도록 권장되는 도서 중에서도 상당수의 고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권장도서 중에서 고전 자료가 많은 것은 고전 자료로서의 독서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 자료는 문학 자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기술, 과학 등 다방면의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자료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 속에서 현대의 상황과 독자층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2) 이상섭. 1980.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민음사.

시도된다면 오히려 고전 자료는 독서의 흥미를 증진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에 빠져들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³⁾.

흔히 독서는 개인적 행위로 생각되기 쉬우나 독서야말로 사회적 통합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독서를 통하여 우리는 당대 사회의 사상과 관습, 사회적 쟁점 등을 습득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하여 지난날의 문화적 유산, 즉 한 나라 한 민족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관습을 학습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에 통합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⁴⁾.

위의 내용에 기초해 보면 독서는 결국 사회적 통합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통합은 당대의 사회구성원 사이의 횡적 통합뿐만 아니라 구세대와 신세대,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통합을 의미하는 종적 통합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화의 종적 통합을 위해서는 독서교육에서 고전 자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

독서 교육에서 고전과 관련된 독서는 교양 교육의 차원이나 문학 교육의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고전이란 무엇인가, 고전은 왜 읽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인문학 연구에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인문학 자체가 고전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인문학적 탐색은 ‘고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자기 나름의 대답을 던지고자 하는 시도이다⁶⁾.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오래된 책을 떠올린다. 몇 천 년 혹은 몇 백 년이 된 <논어>, <성경>, <천로역정> 같은 책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고전은 그저 시간이 오래된 책일까? 시간적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도 고전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또한 두 세대 이상의 독자에게 널리 알려져 널리 읽히는 작품도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운수 좋은날>이나 <동백꽃> 등 부모 세대에게도 유명한 소설이 어린이 독자에게 고전으로 읽힌다. 더 나아가 <플란더스의 개>, <장발장> 과 같이 유명한 외국 소설까지 향유한다. 부모세대가 읽었고, 그것이 자녀 세대에 물려져 현대의 어린이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고전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고전은 현대 부모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독서물이기도 하다. 현대의 부모 역시 고전을 읽거나 듣고 자랐

3) 박형우, 2004. 고전 자료와 독서교육,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11호, pp.207-211.

4)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5) 박형우, 2004. 고전 자료와 독서교육,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11호, p.210.

6) 이용주, 2009.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7호, p.213.

고, 성장기에 읽었거나 회자되었던 유명한 작품을 자녀에게 읽히고자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⁷⁾.

고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전은 좋은 책의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고전은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이다. 고전은 변하지 않는 진리와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주목받는다.

셋째, 고전은 일반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내용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인종,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다. 고전의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고전을 읽은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⁸⁾.

독서능력은 학습능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전을 읽으면 사고력이 발달한다. 고전은 논리적 구조가 탄탄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을 읽으면서 저절로 논리구조를 배우고 사고력이 발달하는 것이다. 사고력이 높은 사람은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뛰어나며,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제2장 인문고전 독서교육의 필요성

현대는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이 활발한 고도의 정보화 산업사회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독서활동은 점차 감소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필독도서, 권장도서 등 다양한 자료의 목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다독 학급, 다독자 등에 대한 시상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도록 독려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의 대출도서의 순위를 살펴보면 만화나 환타지 등 흥미 위주의 책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책을 많이 읽는 학생 그룹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독서시간이 늘어날수록

7) 한명숙, 2008. “다매체 시대의 어린이 고전과 학교 고전교육”.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19호, pp.18-42.

8) 송재환, 2011. 「초등고전 읽기 혁명」. 서울 : 글담출판사, pp.50-51.

한국 학생의 읽기 경쟁력이 OECD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들의 독서방식이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실이 없다는 의미⁹⁾이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양적인 독서에 치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적인 독서에 치우치다보면, 깊이 있는 책임기가 힘들어지고 창의력과 사고력이 발달할 기회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고전 독서와 같은 깊이 있는 책임기 경험을 통하여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삶을 바라보는 자세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독서 동기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928년 시카고 대학에 부임한 로버트 허친슨 총장은 대학 4년 동안 고전 100권을 읽어야만 졸업할 수 있는 ‘The Great Book Program(고전 100권 읽기 운동)’을 추진했다. 삼류 대학으로 소문났던 시카고 대학의 학생들은 고전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공부에 매진했으며, 그 결과 시카고대학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이 되었다¹⁰⁾. 이처럼 변하지 않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고전 독서교육은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전을 통하여 학생들은 옛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깊이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고 성현을 통하여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삶에 대한 태도가 보다 진지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과 함께 인문고전 수업을 할 때 한 손에는 850쪽이 넘는 분량의 제인에어 완역본을 들고 “이 책이 무엇이죠?” 하고 묻는다. 학생들이 “‘제인에어’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한다. 이번에는 200쪽 분량의 축약된 번역본을 들고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 학생들의 대답은 역시 같다. “그럼 이 두 책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진 후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책의 저자인 살롯 브론테의 의지와 상관없이 편집자의 생각에 의해 그 많은 분량 가운데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넣고 해서 편집된, 원래 분량의 반의반 정도 분량 밖에 안 되는 축약본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반드시 완역본까지 읽어야지, 축약본만 읽어 놓고 나도 제인에어를 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준다. 피노키오 역시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짧은 그림책 정도만 읽어놓고 피노키오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진지하게 듣던 아이들이 서서히 완역본을 읽는 재미에 푸욱 빠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9) 조선일보 2012년 1월 17일자 사회면 기사, OECD 2009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10) 송재환, 2011, 「초등고전 읽기 혁명」, 서울 : 글담출판사, p.69.

성공적인 인문고전 독서를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과 가정의 세 쪽지가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인문고전 독서에 참여해야 한다. 각각의 학교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고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학교들이 이 역할들을 해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인문고전독서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이에 앞장 서는 선구자가 되기를 바란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부상병이 급증하자 약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의사들은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처방해 주면서 ‘특효약’이라며 환자들을 속였다. 그랬더니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특효약’을 먹었으니 좋아질 거라는 환자 스스로의 자기암시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 효과였다. 이를 플라세보 효과 (Placebo Effect)라고 부른다.

인문고전독서 역시 ‘아인슈타인, 처칠, 에디슨 등이 문제아 또는 사고뭉치에서 천재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인문고전 독서 때문이야. 나도 인문고전 독서를 하면 잠자고 있는 나의 뇌가 깨어날 것이고 저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는 자기 암시와 확신 가운데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장 인문고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3.1. 프로그램의 목적

다독과 속독에 치우친 잘못된 독서습관을 바로잡고, 깊이 있는 책읽기를 통해 생각의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읽은 책은 많아도 책의 내용을 물어보거나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는 아이들은 드물다. 양적인 독서에 치우치다보면 깊이 있는 책읽기가 힘들어지고 창의력과 사고력의 발달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이에 인문고전 독서프로그램을 통하여, 중학교 시절 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2. 프로그램의 구성

- 1) 기간 : 2015년 5월17일-6월 14일(매주 일요일 총5회)
- 2) 운영 장소 : 대치1 작은도서관
- 3) 운영 시간 : 10차시
- 4) 참여 대상 : 고전읽기에 관심있는 중학생들

3.3. 자료 선정 기준

- 1) 동양고전 중 가치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공감에 걸맞은 내용 위주로 발췌
- 2) 보조자료로 관련 영상들을 함께 사용

3.4. 운영 방법

- 1) 사전에 홍보를 통해 고전읽기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들을 모집
- 2) 프로그램 진행 전 평가를 통해 독서종합검사 실시
- 3) 5회에 걸쳐(10차시) 모듈식 수업으로 프로그램진행
- 4) 프로그램 진행 후 평가를 통해 독서종합검사 실시하고, 서술형 평가지를 통한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

3.5. 프로그램 평가 방법 (굴림, 12포인트 진하게)

- 1) 프로그램 실시 전, 독서종합검사 실시
- 2) 프로그램 실시 후, 독서종합검사 실시
- 3) 사전, 사후 독서종합검사의 비교와 학생들의 서술형 평가지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3.6. 프로그램 세부 계획

차시	세부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자체 제작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임텐트 만들기 ● 이 수업에 기대하는 바 적기
2	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채널e-인문학의 힘 ※ 명심보감-친구를 잘 사귀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짱구(짱좋은구절) 책갈피 만들어 친구에게 선물하기
3	질문하는 힘키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다큐-우리는 왜 대학을 가는가? 하브루타 영상 ※ 2010년 G20정상회담 폐막식 오바마대통령 질문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문의 터라!!! ●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방법 하브루타 체험
4	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구-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의 정의내리기 ● 효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 구체적인 실천덕목 세우기
5	學	논어 마바 콜린스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카드로 학에 관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고 이야기하기 ● 내가 생각하는 學이란? 學의 정의내리기
6	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구-초장절영 초나라장수 장왕이 신하의 실수를 덮어준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가지 덕목들이 적힌 카드에서 초나라의 장왕에게서 발견되는 좋은 덕목찾아보기 ● 부족했던 덕목찾아보기
7	正	명심보감-몸을 바르게 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짱구(짱좋은 구절) 2개씩 고르고, 이유 함께 나누기 ● 내가 고른 구절을 이미지로 표현해보기
8	知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자춘추-제나라 경공때 명재상 안자의 첫 번째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혜와 관련된 나의 경험나누기 -지혜로 위기를 모면한 경험 -지혜없음으로 위기를 직면한 경험
9	계획	손자병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다섯가지 기본요소를 보고,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다섯가지 기본요소 수립하기
10	禮	논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의 정의 내리기 ● 내가 기대하는 우리집에서의 예 ● 내가 기대하는 학교에서의 예

제4장 인문고전 독서교육 수업의 실제

학습지도안 (하브루타)

활동주제	질문하는 힘	차시	3	시간(분)	60'	장소	도서관
활동목표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인 하브루타를 체험하고 질문하는 힘을 기른다.						
관련매체	*하브루타 영상 *마따호쉐프 영상 *EBS다큐 우리는 왜 대학을 가는 가 中 조용한공부방 VS 말하는 공부방 대조실험 영상(or 이야기로)	준비물					
		진행자	관영영상,PPT				
		참여자	필기구				
지도요소	교수 - 학습활동					활동지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 정돈하고 주위를 집중시킨다. ▶ 지난 차시에 들었던 강의의 내용 중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한다. ▶ 하브루타의 영상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어떤 진행 원칙이 있는지 찾아본다. 						
전개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브루타 ppt를 보면서 하브루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하브루타 영상을 보면서 8가지 진행 원칙에 대해 알아본다. ▶ 활동지를 통해 하브루타식 질문만드는 방법을 연습해본다. ▶ 8가지 진행원칙에 맞게 하브루타를 체험해본다. 					하브루타식 질문법 만들기	
정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하는 힘을 기르자. 정답을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답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본다. ▶ 다음 차시 안내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브루타식 질문만드는 법을 통해 활동지에 20가지의 질문을 적게 한후, 참여자 전원이 자신이 만든 질문을 2-3가지 정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한번에 2-3가지 질문을 다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두 바퀴, 혹은 세바퀴 돌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 하브루타는 2인 1조로 이루어 실습을 하는데, 두 명 다 말하기를 꺼리는 친구라면 하브루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진행자가 사전에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조편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1. 하브루타의 정의

Jewish Text Study in Pairs

유대인들이 두명씩

Havruta : “친구”의 의미

Meaning Making

敎學相長(교학상장) :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것

Havruta : 함께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과정

4.2. 하브루타의 원칙

- 1)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 주도적으로 토론에 집중
- 2)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바꾸어서 진행 새로운 시각,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
- 3) 다양한 몸짓을 활용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
- 4) 서로 의견을 더하고 격려하여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Winer-Loser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자유분방하게 즐기면서 토론
- 5)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
시끄러운 소리, 어수선한 상황이 오히려 집중하도록 도움
- 6) 큰 소리, 큰 몸동작으로 자신감 고취
자신의 논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
- 7) 상호 지식과 경험의 공유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 답변, 논쟁을 통해 서로 공유, 이해
- 8)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도출

하브루타식 질문 만들기 연습

옛날에는 가난뱅이였던 벼락부자가 있었다.
랍비 할렌은 그에게 말 한 마리와 마부를 주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부가 사라졌다.
그러자 벼락부자는 사흘 동안 마부처럼 직접 말을 끌고 걸어갔다.

위의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20개 만들어서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학습지도안 (孝)

활동주제	孝(효)	차시	4	시간(분)	60'	장소	도서관
활동목표	고전 中 <몽구>에 나오는 일화를 읽고,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관련매체	*몽구 中 <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이야기 *아버지와 까지 동영상(or 이야기) *힐링캠프(타블로편) 동영상(2012년,11월 SBS)					준비물	
		진행자	관령영상. 몽구				
		참여자	필기구				
지도요소	교수 - 학습활동					활동지	
도입 (5')	▶ 자리 정돈하고 주위를 집중시킨다. ▶ 지난 시간의 <명심보감>에 이어 <몽구>를 소개한다. '몽구'란 "어리석은 어린 사람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라는 뜻으로 어리고 무지 하지만 이제부터 세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목마른 요구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천자문』, 『소학』, 『동몽선습』과 똑같은 아동 교육서이다. 천자에 의해 일반 백성을 위한 훈육서로 채택되어 중국 역사상 가장 널리 가장 오랫동안 읽혀온 책으로, 하나의 장대한 일화집이고 기담집이기도 하다. ▶ <몽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효에 대해서 학습할 것을 알린다.						
전개 (45')	▶ 아버지와 까지 동영상을 시청한다.(2분 40초) ▶ 힐링캠프(타블로 편)을 시청하거나 진행자가 영상을 본후 이야기해준다.(영상시청시 5분 소요) ▶ 활동지① <몽구> 中 '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읽는다.(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에 밑줄을 긋게 한다.) ▶ 활동지②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과 그 이유를 적게 한다. ▶ 자신이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시간을 갖는다.(시간에 따라 발표하는 학생의 명수를 조정) ▶ 활동지③에, 효의 사전적인 의미(아버이를 잘 섬기는 일)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효의 정의와 그 이유를 쓰고, 효를 이미지로 표현해 본다. ▶ 자신이 생각하는 효의 정의와 이미지를 발표해본다.(시간에 따라 발표하는 학생의 명수를 조정)					활동지① 몽구中(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이야기. 활동지② 마음에 와닿은 구절과 그 이유를 적어보는 활동지 활동지③ 효에대한 정의와 이미지로 표현해 보는 활동지	
정리 (10')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보게 한다. ▶ 다음 차시 안내						
유의점	- 진행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을 때는 힐링캠프(타블로 편)은 선생님이 이야기로 요약해서 들려준다. - 고전을 읽을 때는 항상 펜을 손에 들고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을 때 바로 밑줄을 그을 수 있게 한다. - 효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효의 정의를 내릴 때 막연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예시로 정의와 이미지를 보여준다. - 예)효는 눈맞춤이다.(왜냐하면 내가 생각에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이기 때문이다.)						

활동지 ① 몽구-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몽구〉의 옛 주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춘추시대 공자의 제자인 민손은 자를 자건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었다.
그 후에 아버지가 후처를 얻어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
민손은 여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모는 민손을 대단히 싫어해서 자기 자식에게는 솜을 넣은 옷을 입히고, 민손에게는 솜대신에 갈대 이삭을 넣은 옷을 입혔다.
어느 겨울의 추운 날에 아버지가 민손에게 마차를 끌게 하고 외출했지만 몸이 얼어서 자신도 모르게 말 가죽끈을 떨어뜨렸다.
민손의 아버지는 그것을 책망하고 야단쳤다.
민손은 스스로 그 이유를 변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이유를 짐작해서 알게 되었고 결국 후처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민손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이렇게 만류했다.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면 저 한 사람이 추워질 뿐이지만 만약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면 세 아이가 훗날 입을 추위에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도 과연 그렇다고 생각해서 후처를 보내려고 한 생각을 바꾸었다.
계모도 이 이야기를 듣자 마음을 고쳐먹고 세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여 마침내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다.

-홍익출판사 〈몽구〉 중 민손의단(閔損衣單)-

활동지 ② 몽구-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오늘의 고전 : 몽구 中 <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몽구’란 “어리석은 어린 사람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라는 뜻으로 어리고 무지하지만 이제부터 세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목마른 요구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천자문』, 『소학』, 『동몽선습』과 똑같은 아동 교육서이다. 천자에 의해 일반 백성을 위한 훈육서로 채택되어 중국 역사상 가장 널리 가장 오랫동안 읽혀온 책으로, 하나의 장대한 일화집이고 기담집이기도 하다.

*나의 마음을 울린 짙 좋은 구절 :

*이 구절을 고른 이유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

배운점 :

느낀점 :

실천할 점 :

활동지 ③
몽구-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효의 정의 내리기

孝

孝를 이미지로 표현해보기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B반

이보라

부곡중앙초등학교 사서교사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이보라(부곡중앙초등학교 사서교사)

1. 들어가는 말

독서토론은 독서와 토론이 동시에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와 토론 각각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두 활동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독서토론은 다수의 결정에 의해 양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며, 토론 준비를 통해 탐구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그리고 피상적이고 독단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정밀하게 책을 읽는 능력과 민주적 소양을 기를 수 있게 해주며, 창의력과 사고력의 신장됨과 동시에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독서토론의 많은 장점 때문에, 최근 유행처럼 많은 곳에서 독서토론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독서토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무시된 채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서토론의 개념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다양한 독서토론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토론을 실습해 보고 독서토론의 효과와 운영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독서토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독서토론의 제대로 이해하고 독서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독서토론의 이해

독서토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토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서토론의 개념과 목적 및 효과를 알아보고, 준비 절차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토론의 이해

(1) 토론의 정의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자와 반대자 또는 긍정자와 부정자가 각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는 공격적 말하기의 한 형태이다.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키는 점에서 토의와 다르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논거의 모순을 지적하고 자기 논거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보임으로써 반론 제기나 논박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립적인 주장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

(2) 토의(discussion)과 토론(debate)의 차이

토의와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 해결 과정, 규칙과 절차, 최종 결론, 팀워크에 대해 차이점을 나타낸다.

토의(discussion)	토론(debate)
▶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 협력하여 논의하는 집단적 사고 • 비논쟁적, 찬반은 잠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답에 대해 설득시키는 과정 • 대립 가운데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 • 논쟁적, 찬반은 표면적
▶ 해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 타당성 입증
▶ 규칙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발언 •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규칙과 절차 • 사회자는 보조적 역할
▶ 최종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으로 최종결론에 도달 • 사회적 다수 또는 강자의 의견이 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자의 결론이 최종결론 •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음
▶ 팀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팀워크 중요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팀워크 매우 중요(팀 구성)

2) 독서토론

(1) 독서의 개념

독서(讀書, reading)는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는 문장으로 기록된 문자 등의 기호를 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행동이다. 표현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행동이란 독서가 아무런 의미도 지니고 있지 않은 단순한 문자나 문자군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로 표현된 문장이나 글을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¹⁾

독서는 저자의 사상이 독자의 경험과 지식, 정서 환경에 따라 독자 개개인에게 새롭게 재구성된 의미로 전달되고 축적되는 ‘의미구성’의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²⁾

그러므로 독서란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글을 읽고, 독자가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독서토론의 개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글을 읽고 글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논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서토론의 목적은 책을 읽고 자신의 이해를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증가와 의견 결정에 대한 주체적 사고 능력의 향상에 있다.

(3) 독서토론의 목적

독서토론의 목적은 책을 읽고 자신의 이해를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증가와 의견 결정에 대한 주체적 사고 능력의 향상에 있다.

(4) 독서토론의 효과

- ① 독서토론은 이해 능력과 공동체의식 및 상호작용에 가장 큰 의의와 효과가 있다. 이것은 독서토론을 통한 의견 교류활동이 독서이해능력의 향상과 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② 독서토론은 의사 표현 능력과 사고력 및 논리력에 효과가 있다. 이것은 독서토론을 통한 독단적 사고 극복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③ 독서토론은 양서 선택과 탐구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 이것은 독서토론을 통한 과정 중심 학습활동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손정표, 2003, 『신독서지도방법론』, 대구: 태일사, p. 14.

2) 한윤옥, 2008, 『독서교육과 자료의 활용』,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p. 306.

3) 독서토론의 운영 절차

(1) 사전 준비

- ① 토론의 목적과 토론 형식을 선정하여 구성원들이 토론 형식을 익히도록 한다.
- ② 구성원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시간계획을 세운다.
- ③ 참여자들에게 토론 시간과 장소 등을 알려준다.

(2) 자료준비

- ① 토론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정하여 사전에 읽고 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사회자는 토론 진행을 위한 발문을 준비한다.
- ③ 찬반 토론으로 할 경우, 논제를 정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3) 발문지 준비

독서토론을 위한 발문은 책에 대한 사전 지식에서부터 책 내용에 대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책 전체를 꿰뚫어 보는 관점에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발문은 정답을 말하도록 물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발문의 구성은 1단계인 배경지식 관련 발문 20%, 2단계인 책의 내용과 관련한 발문 30%, 그리고 3단계인 책과 관련한 논쟁점이나 인간의 삶과 사회 관련 발문 50% 정도로 문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1단계는 배경지식 관련 발문으로 대상 도서를 읽지 않아도 토론자들이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책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이나 책의 주제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상식에 관한 것으로 구성한다.
- ② 2단계는 책의 내용에 관한 발문으로, 대상 도서를 읽었다면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책 내용을 이해하고, 저자의 생각과 표현 의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발의한다.
- ③ 3단계는 책 내용 중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쟁점이나, 책 내용을 확장해서 인간의 삶이나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발문으로 실제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문이 좋다.

(4) 집단 크기의 규정

토론의 질은 집단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론의 목적에 맞게 집단 크기를 결정한다. 토론 시간은 2시간 기준에 10-12명의 토론자가, 1인당 평균 10-12분의 발표시간은 쓸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다.

(5) 토론실 배치

- ① 친밀감을 느낄 정도의 방의 크기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모두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한다.
- ③ 토론 방법에 따라 좌석을 배치한다.

- ④ 조명과 소음 정도, 냉난방 시설 등을 미리 점검한다.

(6) 토론하기

- ① 토론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②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고, 토론이 잘 진행되도록 각자가 노력해야함을 전제한다.
- ③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발언하도록 노력한다.
- ④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전체 토론 시간과 토론자 수를 고려해서, 혼자서 발언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사회자 및 운영자의 역할

- ① 토의 내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제를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 책을 읽은 느낌이나 의견, 비판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비판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②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토론시간을 독점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③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여, 밝고 열기 띤 토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④ 진행자는 지나치게 토론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참여자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할 기회를 주고, 발표 시간이 균등하게 사용 되도록 한다.

3. 독서토론의 방법

1) 읽기 전략 바탕의 독서토론 방법

이 방법은 독서토론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에게 대부분의 독서지도서가 소개하고 있는 독서토론 형태이다. 독서토론에서 독서는 읽기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는 독해(讀解)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협동을 통한 의견 교류를 통해 독해 활동의 활성화를 권장한다. 대표적인 모형은 Tierney³⁾가 정리한 Great books' Shared Inquiry, Conversational Discussion Groups, ECOLA, Discussion Web, Jigsaw와 Daniels⁴⁾이 고안한 Literature Circles이다.⁴⁾

3) R. J. Tierney, J. E. Readence and E. K. Dishner, 1995, Reading Strategies and Practice, Boston: Allyn and Bacon, pp. 229-250.

4) 읽기 전략 바탕의 협동학습 형태는 국내에서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번역된 수업모형명을 사용할 경우, 본래의 의미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어 영어명을 사용하고, 설명에 번역된 수업모형명을 기재하였다.

(1) Great books' Shared Inquiry

Great books' Shared Inquiry(이하 GBSI)의 목적은 독서를 통해 독자에게 평생학습자로서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GBSI 모형에서 추구하는 동기는 글에 대한 유연성과 비판적인 분석 기술, 읽기 이해력,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양서탐구토론'으로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다. GBSI 모형에서 활용하는 책은 미국양서협회(Great Books Foundation)가 내용의 풍부성, 복잡성, 문해적(文解的)도움, 의미성, 매력, 길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GBSI 모형은 선정된 책을 읽고 난 후 토론활동을 통해 학생 및 성인의 독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토론의 과정은 책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토론 참여자는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며, 작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질문을 공유한다. 이모형은 모둠토론 형태이며, 모둠장이 존재한다. 토론활동은 모둠장이 자신의 독서활동에서 발견하지 못한 작품의 의미를 쟁점으로 제기하면서 토론활동을 시작한다. 모둠장은 구성원인 모둠원들이 선정된 책을 정밀하게 읽고, 의견을 한 곳에 모아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후속 질문을 제공한다. 그리고 모둠원들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GBSI 모형을 활용한 독서토론은 반성적 사고 습관의 향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 한다. 이 모형은 독서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석,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념을 전제로 한다. 토론은 선정독서를 읽은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으며, 모두가 읽은 책으로만 토론 내용을 한정한다. 참여자 중에서 모둠장은 질문만 가능하고 대답을 할 수 없다. 모든 참석자들은 선정독서를 두 번 씩 읽고 내용에 대한 필기를 준비해야 한다.

(2) Conversational Discussion Groups

Conversational Discussion Groups(이하 CDG)은 또래간의 상호작용과 전문적 지도 사이의 균형과 공유를 바탕으로 한 읽기 토론 환경 조성을 통하여 작품의 의미 탐색, 전달, 구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야기식 토론' 혹은 '대화식 토론' 등으로 해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CDG 모형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토론활동을 해보는 건 어떻게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토론 공간은 테라스 카페에 비유된다. 토론활동은 운영자의 통제가 아닌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한 개방성을 추구한다. 평가 활동에 참여자들은 평등하게 접근하며, 모든 참석자들을 위하여 적절한 규제가 포함된다. 다양한 환경과 연령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업을 위한 집단 구성 인원은 6~8명이며, 독서 자료는 사고력을 요하는 이야기로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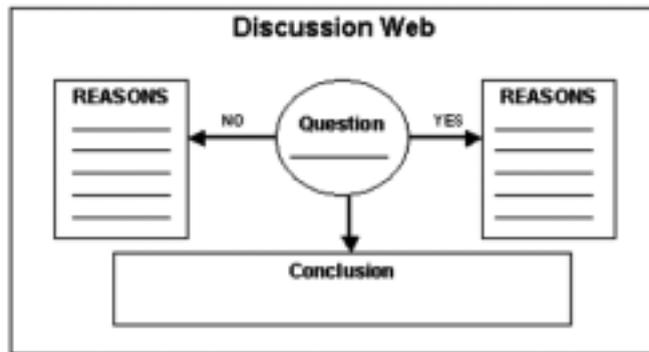
(3) ECOLA

ECOLA는 Extending Concepts Through Language Activities의 약자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통합을 통하여 자신의 이해를 해석하고 점검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

서는 ‘에콜라 토론’, ‘통합적 토론’ 등으로 해석되어 사용된다. ECOLA는 사고력 구성을 점검하기 위한 구성적 특징에 초점을 두며, 목적의식을 가진 텍스트 읽기, 읽기 활동에 대한 반응, 토론, 그리고 자가 정의의 4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4) Discussion Web

Discussion Web은 짝과 생각을 공유하는 토론 사이클을 이용하여 개인, 소모둠, 대모둠의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토의망 토론’, ‘토론망 토론’ 등으로 해석되어 사용된다.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토의망’이라는 그래픽 보조 자료를 제공하여 생각의 과정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나 모순을 제거하여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것을 돕는다.



<그림 1> Discussion Web form⁵⁾

Discussion Web은 토론이 참가자들의 읽기 이해를 돕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토론에 참여한 참가자는 읽은 내용의 풍부한 이해를 위해 같은 텍스트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 활동을 통해 다른 관점을 포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재점검하게 된다.

이모형은 토론 활동 참여가 운영자와 소수 참여자들만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토론활동을 위해 제안되었다. 4가지 언어 과정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발현된다는 점과 단순한 독후활동이 아닌 읽기 전, 쓰기 전 전략으로 토

5) D. E. Alvermann, 1991, "The discussion web: A graphic aid for learning across the curriculum," The Reading Teacher, 45: p. 94.

론망이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개별 활동이 아닌 협동적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토론 자료로는 서술적 이야기가 적합하며, Discussion Web은 협력적 토론활동을 통해 읽은 작품에 대해 활발하고 자유로운 반응을 유도하고, 텍스트가 표현하는 미적 가치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5) Jigsaw

Jigsaw는 참여자가 한 부분의 전문가가 되어 책임을 가지고 모둠원에게 지식을 전달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협동적으로 배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모형은 참여자가 자신이 배운 것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을 근거로 하고 있다. 활동 구성은 협동과 협력을 기반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인 비전, 자존감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또래 튜터링(1대 1 수업)의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참여자의 활동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참여자를 위한 책임감을 증가시켜, 학습 달성을 위한 의존과 협력학습을 의도한다.

(6) Literature Circles

Daniels⁶⁾에 의해 고안된 Literature Circles은 학습자가 독해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이루고, 다른 독자와의 협업을 통한 의미 구성으로 자신의 이해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⁷⁾ 이 모형은 북클럽에서 파생된 독서토론의 한 형태로 모둠 토론 후 전체 토론으로 이어지는 북클럽과는 달리 소규모 모둠 토론에서의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반응을 중시하는 독서토론의 형태이다. 적절한 규모는 3~6명의 구성이다.

토론 활동을 위한 모둠 구성이 도서의 선택에 따라 같은 책을 선택한 참여자들로 결정되며, 이는 독자의 선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독서토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는 도서의 선택, 집단의 구성, 발표 방법 등 독서토론의 진행과 활동 전반에 걸쳐 선택이 존중받는다. 참여자들의 선택에 따라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참여자 주도적인 독서토론수업 모형이다.

2) 시합을 위한 독서토론 방법

이 방법은 실제 독서토론 운영에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선정 도서에서 토론 주제만 선정하고 토론 수업을 실시하는 시합을 위한 독서토론모형이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찬반 대립 토론, CEDA 토론, 링컨-더글라스 토론, 칼 포퍼 토론이 있다.

6) H. Daniel, 1994, Literature Circle: Voice and Choice in the Student-Centered Classroom, York, ME: Stenhouse.

7) K. L. Schlick Noe and N. L. Johnson, 1999, Getting Started with Literature Circles, Norwood, MA: Christopher-Gordon.

(1) 찬반 대립 토론

찬반 대립 토론은 흔히 디베이트(Debate)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재판이다. 찬반 대립 토론은 주제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가진 양측에서 주장의 옳음을 논증이나 실증으로 정당화하여 승부를 가리는 일종의 토의 토론 시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모형의 목적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쟁점을 대립적 관점에서 토론하여 합치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즉 양극단의 입장에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장점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사실과 가치를 판단해서 그 만큼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찬반 대립 토론은 내용보다 형식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어떤 입장이 옳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주장을 논증과 실증으로 잘 표현했는가에 점수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절차가 핵심을 이루는데, 첫째는 입론으로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와 실제 증거를 제시하면서 핵심적인 주장을 하는 절차이고, 둘째는 심문으로 상대의 입론에 대해 논리적 모순과 실제 증거의 타당성 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셋째는 논전 또는 반박인데, 새로운 논리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온 입론과 심문의 결과를 재정리해서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주장을 강화할 것은 강화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주장을 정리하고 정당화하는 절차이다.⁸⁾ 찬반 대립 토론의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찬반 대립 토론의 과정과 방법⁹⁾

단계	과정	방법
1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토론의 규칙 확인 · 주제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료를 검색하고 준비
2	찬성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를 해석과 명료화 · 사용할 용어의 정리 · 찬성 이유 설명
3	반대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주장의 기본적 논리에 근거하여 주장 · 찬성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오류들을 지적 · 찬성논리에 없는 논점을 가져와서 반론의 근거로 활용
4	1차 작전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팀 주장의 단점을 찾아 논박의 내용과 방법을 논의
5	찬성측 1차 논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 주장한 찬성발제에 대한 보충 · 반대발제에 대해 비판

8) 정문성, 2008, 『토의·토론 수업방법 46』, 경기: 교육과학사, pp. 200-201.

9) 상계서, pp. 201-203.

단계	과정	방법
6	반대측 1차 논박	· 찬성측 논박과 동일 · 다만 찬성측 1차 논박에 대한 논박이 주를 이룸
7	2차 작전타임	· 자신의 1차 논박에 대한 반성 · 상대팀의 1차 논박에 대한 약점을 찾아 2차 논박 준비
8	찬성측 2차 논박	· 반대측의 발제, 1차 논박을 모두 재확인하고 비판 · 반대측의 2차 논박에 미리 방어
9	반대측 2차 논박	· 찬성측과 동일
10	반대측 정리	· 반대측 주장이 진실하고 정당함을 강조
11	찬성측 정리	· 반대측에서 찬성논리를 반박하는데 실패했음 강조

(2) CEDA 토론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토론은 정책 결정 토론, 반대 심문식 토론, 교차 조사 방식 토론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1974년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전국 토론 연맹을 만들면서 유래한 형식이다. 미국의 전국 토론 대회(National Debate Tournament) 방식에 토론자들 간의 교차질문을 가미하여 토론자들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토론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이 방식은 교차 질문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도 비판적으로 듣는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CEDA 토론의 가장 큰 특징은 ‘발언권 요청(POI)’을 제도화한 ‘교차 질문(cross examination)’이 있다는 것이며,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토론대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토론대회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활동 시간이 길어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2대 2 모형이라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소수라는 단점이 있다.¹⁰⁾ CEDA의 대상별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10) 신광재 외, 2011, 『토론을 알면 수업이 바뀐다』, 경기: 창비, pp. 54-55.

〈표 3〉 CEDA 토론의 과정과 방법¹¹⁾

순서	논쟁 절차	발언 시간(작전타임 제외)			
		A안 60분	B안 48분	C안 36분	D안 20분
1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8	6	5	3
2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3	3	2	1
3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8	6	5	3
4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3	3	2	1
5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8	6	5	3
6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3	3	2	1
7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8	6	5	3
8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	3	3	2	1
9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	4	3	2	1
10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	4	3	2	1
11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4	3	2	1
12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4	3	2	1
작전타임	긍정측, 부정측 팀장 5분, 3분, 1분	10	10	6	2
* CEDA 논쟁 소요 시간		70분	58분	42분	22분
A안: 미국 CEDA(협회)의 시간배정(표준)		총소요시간 (작전타임 포함)			
B안: 전국대학생토론대회용 시간배정					
C안: 대학 토론수업(50분 강의)용					
D안: 중고등학교 학생 정규 특별수업용 시간배정					

(3) 링컨-더글라스 방식 토론

링컨-더글라스 방식 토론(Lincoln-Douglas Debate)은 1858년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선거 캠페인 중에 공화당 후보 Lincoln과 민주당 후보 Douglas 사이에 있었던 노예제도에 관한 토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모형의 운영 방식은 양쪽에서 각각 한사람이 토론에 참가하는 방식이며, 한 쪽이 발언한 후 상대방이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토대로 자기주장을 하는 형태의 새로운 토론 모형을 구성하였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¹²⁾

11) 이두원, 2005, 『논쟁』,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47.

12) 신광재 외, 『전게서』, p. 54.

이모형의 특징은 철학과 윤리, 논리 중심의 토론을 한다는 점, 상대 논리의 허점과 자신 논리의 방어를 위한 순발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모형의 활용은 토론의 참여자가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과 1대 1 모형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4) 칼 포퍼 토론(Karl Popper Debate)

칼 포퍼 토론은 과학 철학자인 칼 포퍼의 ‘열린사회연구소’(The Open Society Institute)와 소로스 재단 네트워크(Soros Foundation Network)가 1994년에 만든 토론 형식이다. 토론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 자기표현,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모형은 CEDA 토론의 변형으로 검증을 통한 증명을 강조한다. 3대 3 토론이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적절하여 활용이 쉽다.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진 3명의 구성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팀 내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반론 전략을 세운다. 토론의 순서와 발언 순서가 복잡하여 처음 토론을 접한 참여자들에게 적용이 어려우며, 역할분담에 따라 토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¹³⁾

(5) 논제구축형 독서토론수업 모형

논제구축형 독서토론수업 모형은 학습자가 독후활동과 논제 찾기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논제를 찾고, 토의를 통해 최종 논제를 선정하여 토론 활동을 실시하는 독서 활동 기반의 독서토론 수업모형이다. 이 방법은 토론 참여자가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스스로 토론할 문제를 찾는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논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독서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향상을 도모이 된다.

논제 구축형 독서토론수업 모형

차시	시간	단계	학습과정	학습활동	교수활동	전략
1차시	5'	Pre-Activity	준비 (Preparation)	- 동기 유발 - 팀 활동 준비	• 동기 유발 활동 제공 • 팀 구성 및 팀 활동 제공	• 협력관계 형성전략
	15'	Main-Activity (RS2D)	독후활동 (Reading Activity) & 논제 찾기 (Search)	- 독후활동 - 내용이해 - 액션리닝을 활용한 의견 제시 및 교류 - 논제 선정	• 독후활동 촉진 • 교류활동 안내 • 협력학습 안내 • 해결책 피드백	• 정보습득 전략 • 정보공유 전략 • 상호작용 촉진전략 • 문제해결 전략
	20'		1차 실행 (Discussion)	- 다자간 토의 - 최종 논제 선정	• 역할분담 안내 • 토의활동 안내 • 논제 선정 피드백	• 토의 및 토론 전략 • 상호 해결책 공유
2차시	30'	Main-Activity (RS2D)	2차 실행 (Debate)	- 입론하기 - 확인 질문 - 변론 제기 - 최종 발언	• 토론활동 안내 • 토론과정 • 피드백	• 토의 및 토론 전략 • 상호작용 촉진전략
	10'	Post-Activity	심사 및 평가 (Presenting)	- 관정하기 - 학습과정 평가 - 상호 피드백 및 독려	• 결과지침 제시 • 학습과정 평가 안내 • 학습자간 상호 피드백 촉진	• 상호평가 전략 • 동기화 전략

13) 상계서, pp. 55-57.

4. 독서토론의 실습

1)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토론 : 찬반 대립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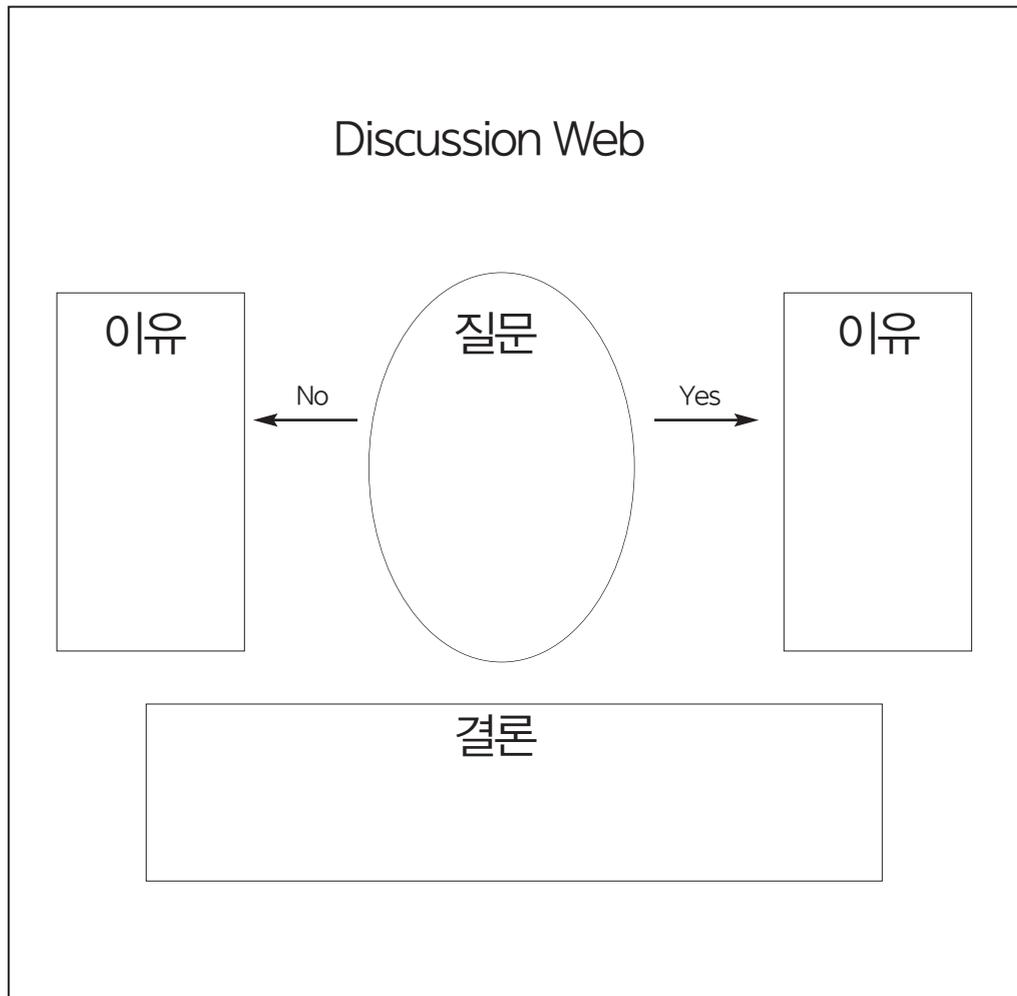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저, 풀빛,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부는 대학 교수를 해야 하는가, 청소부를 해야 하는가 직업에는 귀천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랄다와 거인, 토미 웅거러 저, 비룡소,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선설과 성악설, 어느 것이 옳은가 ※ 제랄다와 거인의 마지막 페이지의 그림 자세히 보기

독서토론

도서명		
논제		
용어정의		
주장	찬성 측 / 반대 측	
주장1	논점1	
	근거	
주장2	논점2	
	근거	
주장3	논점3	
	근거	

2) 우리고전을 활용한 독서토론 : 토론망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청전, 김예선 저, 한겨레아이들,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청은 효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길동전, 정종목 글, 창비,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적의 도둑질은 처벌받아야하는가



3) 문학 작품을 활용한 독서토론 : RS2D 독서토론

완득이, 김려령 저, 창비, 2007.
 ▶ 토론 주제 직접 구축하기

독서토론

도서명		
논제		
용어정의		
주장	찬성 측 / 반대 측	
주장1	논점1	
	근거	
주장2	논점2	
	근거	
주장3	논점3	
	근거	

5. 나가는 말

작가는 우리에게 문학작품을 통해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바티칸의 장미 묵주를 보면서 어머니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난쟁이 아버지와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와 함께 세상과 부딪히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소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선물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경험은 소통을 통해 더욱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독서토론의 독서활동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현재 경쟁적으로 생겨나는 독서토론 프로그램 중에는 독서활동을 즐거움을 수반하는 활동이 아닌 학습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인식하게 하는 부작용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계적으로 책에서 주제만을 뽑아 훈련식으로 토론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서토론은 진정한 독서토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번 문학 산책 연수를 통해 독서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독서토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여, 즐거움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독서토론이 많은 곳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

〈독서토론 참고문헌〉

1. 그림책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 참고 도서

	제목	지은이	출판사	출판년
1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카도	고슴도치	2002년
2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1년
3	모기와 황소	현동영 글/이억배 그림	길벗어린이	2003년
4	선인장 호텔	브렌다 기버슨	마루별	2008년
5	버리대기	박윤규	시공주니어	2006년
6	100만 번 산 고양이	사노 요코	비룡소	2002년
7	종이 봉지 공주	로버트 문치	비룡소	2008년
8	블룸카의 일기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사계절	2012
9	사라, 버스를 타다	윌리엄 밀러 글/존 워드 그림	사계절	2004년
10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셰스카	보림	2008년
11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비룡소	1995년
12	프레드릭	레오 리오니	시공주니어	1999년
13	작은 집 이야기	버지니아 리 버튼	시공주니어	1993년
14	제랄다와 거인	토미 웅거러	비룡소	2000년
15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저/안토니 보라틴스키 그림	풀빛	2000년

2.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 참고 도서

	제목	지은이	출판사	출판년
1	기억 전달자	로이스 로리	비룡소	2007년
2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로버트 뉴턴 펙	사계절	2005년
3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김이윤	창비	2012년
4	리버보이	팀 보울러	놀	2007년
5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자음과 모음	2012년
6	씹씹한 초콜릿	미리암 프레스러	낭기열라	2006년
7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이경혜	바람의 아이들	2004년
8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뜨인돌	2012년
9	열여덟 소울	김선희	살림Friends	2013년
10	열일곱 살의 털	김해원	사계절	2008년
11	오렌지 1KG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로젤린느 모렐	청어람주니어	2009년
12	완득이	김려령	창비	2008년
13	유진과 유진	이금이	푸른책들	2004년
14	지독한 장난	이경화	대교출판	2008년
15	커피우유와 소보로빵	카롤린 필립스 저	푸른숲 주니어	2006년

3. 성인 문학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 참고 도서

	제목	저자인	출판사	출판년
1	동물 농장	조지 오웰	민음사	2001년
2	바리데기	황석영	창비	2007년
3	방황하는 칼날	히가시노 게이고	바움	2008년
4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2011년
5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줄리언 반스	다산책방	2012년
6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문예출판사	2002년
7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이니	현대문학	2010년
8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창비	2009년
9	아홉살 인생(개정판)	위기철	청년사	2010년
10	위대한 개츠비	F. 스콧 피츠제럴드	문학동네	2009년
11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열린책들	2013년
12	파이 이야기	얀 마텔	작가정신	2004년
13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존 그린	북폴리오	2012년
14	화차	미야베 미유키	문학동네	2012년
15	파리 대왕	윌리엄 골딩	민음사	1999년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작은도서관 사서 역량강화 워크숍**

발행일 2015년 8월 27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층
전화 : 044-203-2627전송 : 044-203-3471
홈페이지 : www.clip.go.kr
(사)한국도서관협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 02-535-4868 전송 : 02-535-5616
홈페이지 : www.kla.kr
인쇄 PwK 02-717-0131
